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95호 【루계 제25238호】 주체105(2016)년 4월 4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첨입식정치사상사업으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해나가자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 사상사업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령도원칙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정의 70일전투가 계속 고조되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정치사상사업을 첨입식으로 틀이대여 모든 전선, 모든 분야에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이 창조, 창출되도록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정치사상사업의 실효성과 생활력은 중요하게 그 방법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시대의 지향과 숨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부합되는 사상사업방법, 천만군민의 심장을 팡팡 울리고 온 나라를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하는 정치사업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구현해나가는데 혁명과 건설의 활력이 있다.

정치사상사업을 첨입식으로 벌린다는것은 박달나무를 쐐기를 박아 짜개듯이 사상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요진통에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댄다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발잔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식의 돌발적인 정치사상사업이나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는 뒤거둠식의 정치사상사업이 아니라 당에서 제시한 당면과업관철을 위하여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정치사상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공세적으로 벌려나간다는것이다.

우리 당이 첨입식으로 정치사상사업을 벌림데 대한 방침을 새롭게 제시한것은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높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또한 유일한 무기도 사상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사상사업을 첫째가는 중대사로 내세우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앙양시켜 혁명의 승패와 전퇴를 관가리하는 시련의 고비들을 헤쳐왔다. 당사상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혁명과 건설에서 대고조가 일어나고 승리와 비약의 큰걸음을 내짚어온것이 바로 조선혁명이다.

첨입식정치사상사업방법은 우리 혁명의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정치사업방법, 화선식선전선동방법의 빛나는 계승이며 심화발전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신 사상사업의 고귀한 력사와 전통을 세기를 이어 빛내이며 사상의 위력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기어이 완수하려는 우리 당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첨입식정치사상사업방법에는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을 발동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주체사상의 원리가 구현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도 맞받아나가는 전략전술로 수행해나가는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백백치고있다.

악동하는 첨음으로 비약하는 시대에는 마땅히 진취적이고 전투적이며 박력있는 사상사업이 선행되여야 한다.

오늘의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거창한 창조와 세기적변혁의 시대이다. 지금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세월을 주름잡는 다계단의 변을 일으키며 만리마의 속도로 세계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이 격동적인 시대를 힘있게 추동하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면 당사상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더욱더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첨입식으로 정치사상사업을 벌려나갈데 대한 방침이 제시된것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령도의 위대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주체100년대 당사상사업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친 전환적리정표로 된다.

첨입식으로 정치사상사업을 벌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그 시대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70일전투의 장엄한 실천투쟁속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70일전투가 시작되여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원쑤격멸의 의지가 비상히 앙양되고 강성국가건설의 전역에서 일심단결의 기상, 대비약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칠수 있은것은 전당이 정치사상사업을 드세차게 벌린 자랑찬 결실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론론히 무장시키고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 자강력의 강자,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사로 억세게 준비시키기 위한 전례없는 사상공세의 열풍속에 금속, 기계, 석탄, 전력,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시대의 전형들이 창조되였으며 전국도처에서 상반년계획, 년간계획완수자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우리 식의 국산화, 현대화실현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인민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이 다발적, 련발적으로 이룩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국악무도한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무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며 세계를 향하여 뻗쳐올히 돌진하는 우리 천만군민의 강용한 분때는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의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현실은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이야말로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치는 오늘의 장엄한 시대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과학적인 정치사업방법이며 최단기간에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실효가 대단히 큰 사상사업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70일전투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는 참으로 대단하다. 이제 남은 기간은 천만군민이 천백배의 힘을 모아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비약에서 더 큰 비약에로 내달려야 할 관건적인 시기이다. 당 제7차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기본방도는 바로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화력을 최대로 높여나가는데 있다. 70일전투의 대승전포성이자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의 위력이다.

첨입식정치사상사업방침 제시, 이것은 밤알에도 사상을 새우면 바위를 뚫을수 있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중시론과 단숨에의 기상으로 이 땅우에 영웅적신화와 전화위복의 기적,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시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예술의 빛나는 구현이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들어선 위대한 전환의 시기에 사상의 위력, 사상사업의 위력을 최대로 높여나갈수 있는 만능의 보검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의 70일전투는 일대 사상전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의 본질과 중요성을 똑똑히 명심하고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사상전의 포성을 더욱 힘차게 울려나가야 한다.

첨입식으로 정치사상사업을 벌려나가는데서 기본은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는것이다.

어떤 사업이든지 거기에는 핵이 있고 중심고리가 있다. 아무리 어려운 과업도, 방대한 일감도 중심고리만 정확히 찾아쥐면 방도가 생기고 돌파구가 열리기마련이다. 과녁을 바로 정하지 못하면 명중탄을 퍼부을수 없듯이 중심이 명백치 않은 사상사업은 공대포를 쏘는것이나 같다.

이번 70일전투기간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을 받들어 우리 식 철생산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심을 두고 그 실현에로 온 기업소를 발동시키는 정치사상사업을 철야로 벌림으로써 주체철생산에서 최고실적을 련속 돌파하는 혁혁한 위훈을 창조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 날마다 전해지는 혁신적성과들에도 완공을 앞당길수 있는 요진통을 찾아 거기에 사상사업의 화력을 들이댈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귀중한 경험이 새겨져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지난 70일전투기간의 성과와 경험, 자기 단위의 구체적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정치사상사업의 중심고리를 똑바로 정해야 한다. 70일전투목표실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문제, 련쇄된 부문들을 추켜세우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갈수 있는 돌파구를 중심고리로 삼아야 한다. 여러가지 일감들이 겹친다고 하여 좌왕우왕하거나 주타격방향에서 탈선하는것과 같은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는것은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의 중요한 요구이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중심고리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시키거나 정치사상사업을 오분열도식, 행사식으로 한두번 해가지고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내세운 목표를 실현할 때까지 련속적으로 강도높이 들이댄다는데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의 특징이 있다.

우리에게는 중앙으로부터 지방, 개별적단위에 이르기까지 사상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고 강력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갖추어져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교양, 강연, 선동망들과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을 70일전투목표관철을 위한 사상전에 총동원하여야 한다.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을 비롯한 사상사업의 다양한 형식들을 적극 활용하며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현실적조건에 맞는 간편하고 기동적이며 참신한 선전선동방법들을 탐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판에 박은것처럼 같은 소리,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는것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을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잠시도 중단없이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혁명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고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일신시키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정치사업, 사상사업의 목적은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각성시키고 분발시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는데 있다. 우리 당이 70일전투를 발기한데는 짬짬니아적으로는에 띄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투과정을 통하여 전체 인민을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참다운 혁명가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려는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론론히 무장시키고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자기 힘만 믿고 일떠서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 제현자들로 육성하는데 사상사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누구나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열렬한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혁명신념, 전절한 반제계급투쟁정신을 발휘해나가도록 사상전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 70일전투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자강력제일주의, 과학기술의 위력을 깊이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패배주의와 요령주의, 보신주의, 판료주의, 수입병을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공격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하겠다는 웅대한 포부와 결사의 투신력을 지니고 대중적영웅주의,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은 일군들의 비상한 열정과 투지를 요구한다.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당일군이건 행정일군이건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상사업을 벌려야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의 핵심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은 마땅히 오늘의 70일전투에서 진격의 나팔수, 정치활동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사상의 무기를 메고 목적의식적으로 현실속에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적극적인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령도사를 교과서로, 귀감으로 삼고 무슨 문제든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풀어나가는 습벽을 붙여야 한다. 들끓는 전투현장들에서 직접 북채와 마이크를 틀어잡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고무추동하는 박력있고 호소성이 강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선동연설을 한번 해도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가 대중의 심장에 철철히 새겨지고 그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최대로 분출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말없는 정치사업이다. 모든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야 한다. 손에 기름을 묻히고 신발에 흙을 묻히면서 군중과 어울리는것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모든 면에서 군중의 거울이 되고 누구보다 높은 사업실적을 내며 만짐을 지고 뒤고 또 뒤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첨입식정치사상사업으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해나가야 하는 오늘날 출판보도, 문학예술부문의 사명과 역할은 더욱더 증시되고있다.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이 시작되여 한달동안 중앙의 예술단체, 예술선전대 예술인들은 연 270여개의 주요전투장들에서 59만여명을 대상으로 430여차의 경제선동활동을 진행하였다. 각지의 대고조전투장들에서 힘있게 벌어진 예술인경제선동활동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만리마속도창조에로 힘있게 떠민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출판보도, 문학예술부문의 기자, 언론인들과 예술인들은 우리 당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깊이 새기고 1970년대와 같이 맹렬한 선전선동활동을 벌려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사상의 미싸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여 우리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고 원쑤들에게는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 70일전투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 전형단위들과 일군들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을 강화하여 경쟁열풍이 온 나라를 뒤덮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도처에서 과감히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술인들은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 중요대상건설장들을 비롯하여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적극 달려나가 선동공세를 들이댐으로써 모든 단위, 모든 전선, 온 나라가 앙양된 분위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 창출되도록 첨입식으로 정치사상사업의 화력을 들이대여 전체 인민을 대중적영웅주의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할것이다.

자력자강의 만리마속도를 창조하여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만방에 떨치자

려명거리건설착공식 진행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자강력제일주의의 거세찬 불길로 원쑤들의 비렬한 도발책동을 단호히 쳐갈기며 최후의 승리를 향해 용틀임, 용매진해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안고 또 하나의 선경거리, 려명거리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 일떠서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려명거리건설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을 빛내이실 력사의 명세를 다지신 룡남산지구를 백두산대국의 래일을 상징할수 있게 더 훌륭히 꾸리려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애국충정의 발현이며 우리가 잘사는것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고 미쳐날뛰는 적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총정의 70일전투의 불길높이 려명거리건설에 떨쳐나선 전체 건설자들은 조선혁명의 승리의 려명이 밝아오는 성스러운 곳에서 새로운 만리마속도를 창조하여 인민의 최고리상을 실현하며 세계를 향해 파감히 돌진하는 영웅조선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쳐갈 억척같은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게 될 려명거리건설착공식이 3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착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착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2016년 3월 17일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자!》,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세계적인 도시로 더 잘 꾸리자!》, 《려명거리건설에서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자!》, 《만리마의 속도로 려명거리건설을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자!》, 《자력자강》, 《만리마속도》라는 구호판들과 글발들,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당, 무력,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건설자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하였다.

착공식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김정관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착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핵전쟁도발소동과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정의 70일전투를 힘차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려명거리건설착공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룡흥네거리사이에 또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건설을 선포하시였으며 거리이름을 《려명거리》라고 명명해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려명거리건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어버이장군님께서 조선을 빛내이실 력사의 명세를 다지신 룡남산지구에 백두산대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상징하는 현대적인 거리를 일떠세워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더 잘 모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을 비롯한 과학자, 연구사들이 살게 될 살림집을 기본으로 하는 려명거리건설은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보여주는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현지에서 거리형성을 잘하며 려명거리를 21세기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 만들데 대한 원칙적문제들로부터 건설자재보장과 공사속도와 질, 건설력량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려명거리를 올해중에 만드시 일떠세움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밝고 창창한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뚜렷한 앞길을 개척하는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과시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을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이 당에서 정해준 기일안에, 당에서 정해준 질적수준에서 려명거리를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야말 결사관철의 의지를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 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연설자는 전체 지휘성원들과 인민군군인들, 돌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건설의 첫시작부터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화약에 불을 달고 적진을 향해 뛰여드는 육탄용사의 자세로 전투장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모든 건설대상들을 앞당겨 완공하고 주체조선의 건설속도, 새로운 만리마의 속도를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단위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려명거리건설이 건설부문에서 수입병을 뿌리뽑고 국산화비중을 높이는 전환적계기가 되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일하고 학습하고 생활하며 불타는 고지에서 노래소리 높이 울리며 적들을 쳐부신 전화의 영웅전사들처럼 언제나 혁명적랑만과 기백에 넘쳐 투쟁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단위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첨입식으로, 공세적으로 드세게 벌려 그들을 당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해가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철퇴로 원쑤들의 머리를 후려치며 더러운 몸뚱아리에 치명적타격을 안기는 비수를 꽂는 심정으로 착공의 첫삽을 박을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하고야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과 헌신적인 투쟁이 있기에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려명거리건설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완공함으로써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선군조선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리영철, 내각제1사무국 부국장 박훈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3 면 으 로 계 속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자

혁명일화

우리 장군님의 《주경야독》

온 나라에 70일전투의 승리를 담보하여주는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길거리는 물론 뻐스와 지하전동차안에서 손에손에 책을 들고 학습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모습,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전민학습의 대전당들에 넘치는 전례없는 학습열풍, 통일적인 보급망을 형성한 과학기술보급실들에서 누구나 탐구하며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해가는 이채로운 풍경…

전민학습의 새 경지를 보여주는 이 광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도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일화들을 가슴뜨겁게 더듬어보게 된다.

온 나라 인민이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후복구건설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해가던 주체44(1955)년 1월 어느날이였다.

밤깊도록 어느 한 도서실에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서에 어넘이 없으시였던것이다.

도서실의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로 조용히 다가가 매일 밤늦도록 책을 보니 피곤하시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제야 책에서 시선을 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손수건으로 눈을 비비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일때문에 어느 하루도 편히 쉬시는 날이 없으신데 자신께서 어떻게 편안히 지내겠는가고 하시면서 이제 습관이 되여 그런지 밤늦도록 책을 보아도 피곤한줄 모르겠다고, 그저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것이 안타깝다고 나직이 되이시였다.

일군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였다.

책을 한번 잡으시면 밤이 새도록 놓을줄 모르시는 그이의 열정이 가슴속에 품으신 높은 뜻에서 불타오르는것임을 느꼈기때문이였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치고있었다. 이따금 하얀 눈가루가 유리창에 휘뿌려지군 하였다.

바람소리를 들으시며 창밖을 이윽토록 내다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추운 겨울밤이면 항일유격대원들이 생각난다고, 우리 어머님은 자신께서 어렸을 때 항일유격대원들이 보진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가며 싸운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머님은 언제인가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밤에 산에서 싸우다 희생된 동지들이 이국땅에 묻히여 저 눈을 맞을것이라고 가슴아프게 말씀하시였다고, 어머님의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이름할수 없는 추억에 잠겨계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용하나 힘있는 어조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야 합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책읽기도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 진할줄 모르는 열정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는 일군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일군의 흥분된 심정을 눅잦혀주시려는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처음 듣는 말이여서 일군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며 《주경야독》이란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라는 말이라고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밝은 미소와 다정한 음성에 눈보라도 칼바람도 금시 멈춰선듯 방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깃들었다. …

못 잊을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주경야독》하신 우리 장군님의 무한한 정열과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은가.

자신에게도 하루 24시간밖에 차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책은 많고 시간은 모자라니 림체적으로 시간을 리용할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대각선으로 책을 읽으시고 단번에 두가지 책을 독서하신 사실,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면서 큼직한 책꾸레미를 가지고 가셨다가 전부 읽으시고 일가견까지 적어놓으신 이야기…

그 나날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하여 학창시절부터 읽은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면 주체사상탑을 고이고있는 대돌만큼 될는지도 모른다고 하시였으니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그이께서 탐독하신 천문학적수자와도 같은 책들의 수를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하기에 생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장군님의 지식창고에는 없는것이 없다고, 고양이를 관련한 자료도 있을런지 모르겠다고 하시였고 또 언제인가는 한 인간이 모든 지성과 재능을 최고봉의 경지에서 겸비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를 전설적인 위인이라고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주경야독》,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애후과 경탄속에 절세의 실력대가, 절출한 사상리론가, 불세출의 선군령장, 희세의 정치원로로 높이 칭송받으실수 있게 된 근본비결이 있고 우리 인민이 당의 령도따라 미제의 고립압살의 광풍을 창조와 번영의 열풍으로 뒤번져놓으며 조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만을 안아오는 영웅적인민으로 존엄떨칠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이 뜻깊은 혁명일화는 우리 세대와 후손만대에 이렇게 전하고있다.

책은 말없는 스승이며 풍부한 지식의 보물고이다.

수준을 높이는데서 책을 보는것보다 더 좋은 묘술이 없다.

학습은 만리마의 억센 나래이고 휘황찬란한 앞길을 밝히는 등대이다!

본사기자 김 성 남

70일전투정황에 맞는 문답식학습

개천시당위원회 사업에서

70일전투가 시작되여 며칠이 지난 어느날 개천시의 당 및 행정일군들은 비상협의회에 참가하라는 련락을 받았다.

전투가 벌어지는 때에 소집된 협의회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토의될것이라는 제나름의 생각을 앞세웠던 일군들은 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일철동무가 70일전투분위기에 맞게 학습전투를 벌릴데 대한 문제토의를 제기하자 저으기 놀랐다.

당책임일군은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70일전투를 선포한데는 짧빠니야적으로 눈에 띄는 가시적성과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면서 학습전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문제는 철야전투가 벌어지는 분위기에 맞게 학습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습은 실속있게 하여야 당정책을 똑똑히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수 있는데 학습에서 제일 좋은 방법의 하나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문답식학습방법입니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진지한 토의끝에 이미 실천을 통해 그 우월성이 확증된 문답식학습경연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조직하는것으로 온 시에 학습열풍을 일으켜나가기로 하였다.

주관부서인 선전선동부가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시당위원회 비서 김호선동무는 문답식학습경연과 관련한 부서적인 협의회를 여러차에 조직하였다. 경연날자와 참가단위, 조직운영방법이 시당위원회 결정으로 채택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직책상 임무와 사업분담이 다른 조건에 맞게 문답식학습경연을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한것이 특색있다.

시당위원회는 누구보다 일군들의 문답식학습경연을 각별히 중시했다. 70일전투의 성과여부가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는것만큼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책임과 본분을 다하게 하자면 그들부터 혁명의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학습을 잘해야 한다고 보았던것이다.

시안의 령도업적단위 당 및 행정일군들의 문답식학습경연을 조직한것도 이런 의도에서였다.

지난 시기와 다른 점은 학습문제를 일률적으로 주지 않은것이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령도업적내용이 곧 학습문제로 되게 했다.

시당위원회는 령도업적단위 당 및 행정일군들의 문답식학습경연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고 그들을 분발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지난 2월말에 진행된 문답식학습경연이후 개천려관과 시사회급양관리소 1식당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이 70일전투목표수행에서 앞장서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시당위원회는 령도업적단위 일군들의 문답식학습경연을 불씨로 학습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용의주도하게 해나갔다.

주목되는것은 경연준비를 잘하는데 힘을 넣어 그 실효가 최대로 나타나게 한것이다.

공업부문, 농업부문, 비생산부문 일군들의 문답식학습경연을 잘 짜고들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력량을 편성하여 문답식학습문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였다. 그것을 시안의 당조직들에 내려보내여 학습반별로 해당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활발히 벌리게 하였다.

절과 해당한 문제의 답안을 외우면 문답식학습경연준비가 다된것처럼 생각하던 현상이 극복되고 모든 문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서로 토론하면서 이악하게 학습하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학습조건과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도 의도적으로 진행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개천시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내용과 5대교양내용 등 문답식학습문제를 대중집합장소들에 게시한것이다.

또한 시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모임때마다 학습문제에 대한 인식정형료해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업과 생활이 학습과정으로 이어지게 하고 대중의 학습열의를 고조시키는 좋은 방도로 되였다.

문답식학습경연이 선수본위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데도 관심을 돌리였다.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경연에 빠짐없이 참가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문답식학습경연을 여러차에 조직하였다. 이것은 경연에서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승벽심을 높여주는 과정으로 되였다. 동시에 학습경연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게 하였다.

시당위원회는 문답식학습경연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지난 3월 27일에 진행된 교육부문 일군들의 문답식학습경연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방도들이 많이 나왔다.

문답식학습경연시간을 전투분위기에 맞게 정한것도 주목된다.

경연을 통하여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서 학습열풍을 고조시키니 모든 일이 잘되여나갔다.

혁명사적교양실건설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교시관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이 마감단계에서 벌어지고 남천강제방보수가 성과적으로 끝난것을 비롯하여 70일전투목표들이 앞당겨 수행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70일전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자면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열풍을 거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천시당위원회가 70일전투기간에 진행하고있는 문답식학습경연은 실효가 큰 학습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본사기자 손 명 희

문답의 방법으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만경대애국늘창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철야진군길에 늘어난 《강사》들

ㅣ김형직군 고읍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ㅣ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초급일군이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여기에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김형직군 고읍협동농장에서 올해전투목표를 세울 때의 일이다.

지난해의 경험에 비추어 관리위원회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새로운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고 영농공정을 앞당기며 많은 자급비료를 생산하여 지력을 높이고 말을 논으로 전환시키는 등 방대한 목표를 내세웠다.

일부 사람들은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로력과 자재를 비롯하여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 목표를 다 점령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 분위기를 대번에 가셔버린 일군이 있었다. 초급당비서 윤창해동무였다.

물론 목표는 방대하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뜨겁게 새겨진 군에서 사는 우리 일군들이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뼈속깊이 새기고 그것을 대중의 심장마다에 새겨줄 때 과연 못할 일이 무엇인가. …

초급당일군의 절절한 호소는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었다. 이렇게 되여 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에 방대한 전투목표를 내세우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에 맞게 사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가 선차적인 주목을 돌린것은 농장의 당, 근로단체, 관리일군들과 초급일군들, 당원들까지도 정치사업의 주력으로 내세운것이다. 다시말하여 일군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대중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는 《강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킨것이다.

그를 위해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큰 힘을 넣었다.

학습회와 문답식학습경연, 총화모임 등 여러 계기를 리용하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당정책학습을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잘 이끌었다.

70일전투에 들어서면서 혁명적학습열풍은 더욱 고조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 모두가 대중속에 들어가 학습과 실천을 밀접히 결부시키도록 하였다.

농장에는 류다른 학습풍경이 펼쳐졌다. 전투장 그 어디나 훌륭한 학습장소가 되였다. 거름생산이 벌어지는 전투장, 논갈이가 진행되는 포전, 깊은 밤 농업근로자들의 가정에서까지 대중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학습이 진행되였다.

얼마전 제6작업반에 나간 초급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자고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수십리의 너탄을 더 캐내도록 하였다. 제8작업반에서 논갈이실적이 오르지 못할 때 관리위원장 윤태철동무는 남먼저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논에 들어가 소를 몰아가며 견인불발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모범을 작업반장, 당세포비서를 비롯한 초급일군들과 당원들도 따라배웠다. 누구보다 먼저 새벽문을 열고 포전으로 달려나와 전투장의 분위기를 일신시킨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였고 작업반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 일하는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생눈길, 진창길을 헤치며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겨준 사람들도 다름아닌 그들이였다.

이들의 역할에 의해 70일전투실적은 쑥쑥 치달아올랐다.

올해 농장에서는 지난해보다 수백이나 더 많은 거름을 포전에 실어내고 영농공정을 훨씬 앞당겼으며 과학농사의 지름길을 열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도 마련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이 70일전투기간에 늘어난 《강사》들의 역할과 관련된다고 이곳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이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는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대중의 뼈속깊이에 새겨줄 때 70일전투철야진군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언제나 인민과 함께

최 민 철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해 싸우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자랑은 없다.

죽어도 인민을 위해 죽고 살아도 인민의 사랑속에서 영원히 살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을 통하여 우리는 시종일관 이러한 사상과 관점을 가지고 적과 싸웠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의 열렬한 지지와 사랑을 받았다.

1937년 봄 내가 속하였던 부대가 부금현 칠성하강반의 쓰광린즈에 림시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던 시기에 있은 일이다.

이 일대는 지리적조건으로 보아 적들이 함부로 기여들수 없는 하나의 《자연요새지》였다.

무연한 광야의 한부분을 이룬 칠성하강반에는 사람의 키를 넘는 갈이 우거져있었고 물이 많은 습지대였다.

겉으로 보기엔 줄잎과 물이 질펀하게 고인 보통 습지같았으나 한걸음만 발을 잘못 디디면 순식간에 깊은 흙탕속에 빠져들어가 헤여날수가 없었다.

이러한 습지관에도 간혹 군데군데 높고낮은 구릉지대가 있었고 키거센 울창한 수림까지 들어차있었다.

바로 우리가 자리잡은 쓰광린즈도 이러한 지대의 하나였다.

우리가 이 지대에 림시근거지를 두고 활동하게 된것은 왜놈들의 악선전에 기만당하여 우리 유격대를 잘못 인식하고있는 이곳 인민들에게 혁명의식을 넣어주며 그들속에서 반일력량을 조직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우선 칠성하강반에 있는 루도린즈부락 인민들과 련계를 맺기 위하여 그곳 실정을 료해하였다.

당시 루도린즈는 약 400호가량되는 중국인부락이였는데 주위는 높은 토성으로 둘러싸이고 성벽중간마다에는 포구가 있었다.

그러나 부락안에는 왜놈《수비대》나 경찰은 없고 다만 인민들스스로가 자체방위를 위해 조직한 자위대가 있을뿐이였다.

그들은 자체로 만든 포(나무로 만든것)까지 가지고있었다.

우리가 이 지대에 오기 전까지만 하여도 토비놈들의 략탈행위가 빈번했는데 인민들은 놈들이 부락을 습격할 때마다 나무로 만든 포를 걸어놓고 냅다 갈기군 했다 한다.

이리하여 토비놈들은 아직 한번도 이 부락에 들어오지 못했다.

부근에 주둔하고있는 일만군경들과 《수비대》놈들도 이 부락인민들을 경계나 하고있을 정도였고 손은 대지 않았다.

적들의 이러한 리면에는 간교한 흉책이 숨어있었다.

왜놈들은 토비들의 략탈행위가 있을 때마다 마치도 유격대가 그렇게 한것처럼 인민들속에 기만선전을 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유격대를 적대시하게 하였다.

이것은 일시적이나마 우리 유격대와 인민과의 련계에서 난관을 조성했다.

지휘부에서는 적들의 이러한 흉계를 간파하고 수차에 걸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인민들속에서 왜놈들의 허위선전을 폭로하며 우리 유격대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갖도록 하기에 노력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 부대는 루도린즈부락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그것은 우리의 실지행동으로써 인민들의 그릇된 생각을 하루바삐 깨우쳐주자는데서였다.

우리는 대낮에 붉은기를 휘날리며 성문앞으로 걸어갔다.

이때 성문을 지키고섰던 보초병(부락 자위대원)은 우리를 보고 당황해하였다.

대렬 맨 선두에 서서 들어가던 대원 한 동무가 먼저 보초앞으로 다가서며 소리를 쳤다.

《놀라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항일유격대요.》

《항일유격대라니?》

보초는 반신반의의 태도로 우리 대오를 찬찬히 훑어보는것이였다.

잠시후 촌장이 성문밖으로 나섰다.

《정말 항일유격대인가?》

이때 리학만동지가 대렬앞으로 쑥 나서며 말했다.

《무엇때문에 우리를 의심하는거요. 저 붉은기를 보면 알터인데…》

촌장은 그제야 알만 하다는듯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가만히 좀 기다리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정식으로 환영하겠소!》 하고는 바삐 성안으로 사라졌다.

이미전에 리학만동지는 이곳에도 몇번 다녀간 일이 있어 부락사람들은 그를 잘 알고있었다.

잠시후 성문우에는 우리 유격대를 열렬히 환영한다는 글이 붙여지고 촌장이 자위대를 거느리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인민들의 환대는 더욱 지극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언행에서는 어디엔가 우리를 경계하며 조심스레 대한다는것이 느껴졌다.

그럴수록 우리는 로인들을 존경하고 지방풍습을 존중하면서 인민들을 더욱 친절하게 대하였다. 그리고 마당을 쓸어주고 물을 길어주며 농사일을 돕는 등 그들의 바쁜 일손을 적극 도와주면서 일제의 침략상에 대하여, 우리 유격대의 투쟁목적과 사명에 대하여 알기 쉽게 거듭 해설해주었다.

이렇게 이 부락에서 며칠 지내는 동안 인민들과 우리들사이는 어느덧 한집안식구처럼 다정해졌으며 그들의 정치의식도 급속히 높아져갔다.

이후부터 루도린즈인민들은 유격대를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피복, 식량을 보내줌으로써 우리를 적극 도와주었다.

칠성하류역일대의 부락이 이렇게 점차 우리의 영향밑에 들어오게 되자 적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최용건동지의 인솔하에 우리 한개 중대가 얼도린즈부락에서 공작을 하던 1937년 6월 어느날, 정오가 훨씬 지났을 때 이곳으로 적이 밀려왔다.

적은 순 왜놈《수비대》로서 한개 련대가량 되였다. 수십명에 불과한 우리에 비하면 적의 력량은 대단히 많았다.

그러나 적들이 얼도린즈에 들어오자면 습지관가운데로 뻗은 외줄기길로밖에 달리는 행동할수 없었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우리들이 성벽과 포대에 의지하여 그 길만 막아선다면 능히 승리할수 있었다. 우리는 자신심을 가지고 바삐 전투준비를 서둘렀다.

적들은 멀리서부터 총질을 해대며 외줄기길로 하여 우리에게로 몰려왔다.

우리는 총소리 한방 내지 않고 놈들이 가까이 다가서기만 기다렸다.

적들이 약 50m앞까지 접근하였을 때 우리는 기관총과 보총으로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앞에서 오던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리로 쓰러졌다.

불의에 불벼락을 맞은 놈들은 황급히 뒤걸음질치더니 이번에는 박격포를 쏴대기 시작했다.

적의 포탄은 성안으로 날아와 민가를 파괴하고 인민들에게도 일부 피해를 주었다.

인민들은 놈들에 대한 치솟는 적분을 참지 못하여 나무포를 끌고와서 함께 싸우자고 우리에게 간청해나섰다.

그들의 심정은 심분 피해할수 있었으나 우리는 그 요구를 수락할수 없었다. 그들이 전투에 직접 참가한다면 상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우리가 이곳을 떠난 후 왜놈들에게 행패를 당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인민들은 이러한 사정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이 정말 인민의 군대요!…》라고 하면서 비록 좋은 잠지 않았지만 희생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고무를 받으며 놈들에게 더욱 무서운 타격을 가했다. 성문앞에는 놈들의 주검이 덩굴고있을뿐 적들은 엄전도 못했다.

그런데 적의 포탄은 계속 날아와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위협했다. 시간이 갈수록 포탄에 의한 피해는 더해질것이였다.

이때 지휘부에서는 전중대가 부락에서 철수하여 얼룡산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얼도린즈에서 얼마간 떨어져있는 얼룡산은 전투하기에 그리 좋은 곳이 못되였다. 게다가 부락에서 그곳까지는 골관이여서 그곳으로 이동한다는것은 여간만 불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민을 위해 총잡고 싸우는 우리들이 인민에게 피해를 끼칠수는 없었다.

우리는 뒤따라오는 적을 족쳐대면서 신속히 얼룡산에 올라가 산릉선을 차지하고 재빨리 사격호를 팠다.

반원형으로 진지를 차지한 우리들은 적 선두대렬이 얼룡산에 오르는 경사면에 이르자 일시에 총탄을 퍼부었다.

적련대장놈은 《일본도》를 뽑아 휘둘러대면서 뒤걸음질치는 사병들을 다시 앞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이것도 무모한 발악이였다.

우리는 계속 맹렬한 사격으로 놈들이 곧을 쳐들지 못하게 하였다.

얼룡산아래는 삼시간에 우리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물구뎅이에 빠져죽은 적들의 시체로 뒤덮였다.

뒤로 물러섰던 놈들은 포사격을 퍼부으며 다시 이리떼처럼 몰려왔다.

이때 나는 대렬뒤에서 지휘하고있는 적련대장놈의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단단히 마음을 다지고 총을 겨누었다.

공교롭게도 그놈이 휘두르는 《일본도》가 해빛에 어찌나 반사되는지 정확히 조준할수가 없었다.

나는 그만 울화가 나서 그놈을 대강 짐작으로 조준하고 몇방 쏘았다. 그러나 총알은 빗나가고말았다.

이때 김학산동무가 내곁으로 다가와서 왜놈련대장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땅!》 하는 총성과 함께 적련대장놈은 몸을 비틀면서 물속에 처박히고말았다.

나는 내 손으로 그놈을 죽이지 못한것이 분했다.

조금후에 몇몇의 왜놈장교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와서는 그놈의 시체를 끄집어내느라고 야단법석을 하는것이 보였다.

나는 얼른 조준하여 그중 한놈을 그 자리에 거꾸러뜨렸다.

우리의 맹렬한 사격앞에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수다한 주검만을 낸 적들은 다시 포사격을 하며 발악을 했다.

우리들은 적 박격포수들의 동작을 빤히 내려다보면서 사격호속에 엎드려있다가는 적들이 곧을 들기만 하면 기관총으로 냅다 갈기군 했다.

전투속에서 어느덧 하루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갔다.

격렬한 싸움은 의연히 계속되고있었다.

이때 등에 짐을 진 인민들이 산을 넘어 바삐 우리에게로 달려오고있었다. 우리는 잠시나마 놀라움을 숨길수 없었다. 그들은 얼도린즈에 사는 인민들이였다.

왜놈들이 성안으로 밀려들게 되자 그들은 급히 린접부락으로 피신해갔었다. 총성은 그곳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싸우는 유격대를 돕자!》라는 구호밑에 전부락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인민들이 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가지고 이들이 대표로 선발되여 우리에게 왔던것이다.

김이 나는 음식을 받아든 나의 가슴속으로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이놈들아! 수백, 수천만 인민이 우리와 함께 있다! 어디 올테면 오라!》

김학산동무가 불을 토하듯 웨치었다. 우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했다.

우리앞에서 적들은 주검을 쌓으면서도 순순히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적들은 정면공격을 계속하는 한편 일부 력량으로 우리를 후면으로 기습하려고 시도했다.

한종협동무를 비롯한 6명의 우리 동무들은 간신히 얼룡산뒤쪽 경사면에 달라붙은 적에게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다.

참패를 당한 적들은 드디여 어둠을 리용하여 황급히 도망치고말았다.

우리는 이날 전투에서 왜놈《수비대》련대장을 비롯하여 한개 련대의 력량을 거의나 소멸하고 많은 무기들을 로획하였다.

우리가 산에서 부락에 내려왔을 때 인민들은 열광적인 환성을 올리며 우리들의 전투승리를 축하해주었다.

이튿날 아침 부대가 이 부락을 떠나게 되였을 때 온 부락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며 정성들여 만든 원호물자를 실은 마차를 끌고 우리를 따라나섰다.

그들은 멀리까지 따라오면서 우리와 헤여지는것을 몹시 서운해하였다.

바래는 인민들이나 떠나는 유격대원들은 서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손을 흔들었다.

이처럼 우리 유격대는 그 어디에서나 인민을 믿고 인민과 함께 살며 싸웠으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위해서라면 골짜기를 가리지 않고 적과 용감히 싸웠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원쑤들에게 보다 심대한 타격을 줄수 있었다.

그 어떤 야만적인 《초강도제재》도, 전대미문의 군사적압살도, 천인공노할 《제도붕괴》책동도 필승의 선군대로로 질풍쳐나가는 백두산대국의 눈부신 전진을 가로막지 못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담화

천하를 뒤흔드는 백두산대국의 선군폭풍이 이 행성의 온갖 어지러운 흙먼지회오리바람을 가차없이 쳐갈기며 비장한 대격돌을 일으키고있다.

선군의 핵위성과 우주에 뻗친 정의의 위력에 멘접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광기어린 대조선압살소동은 전무후무한 지경에 이르렀다.

올연력사 70여년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 《제재》소동이 우리 삶의 공간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침략과 전쟁에서 악명을 떨쳐온 《8대전략자산》이 깡그리 동원된 핵전쟁소동이 우리 삶의 지반마저 통째로 찬탈하고 우리의 심장이고 운명인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는데로 총집중되고있다.

세계전쟁사에 가장 가혹한 제재의 대명사로 사람들을 전률케 한 베닌그라드봉쇄도, 랭전시대의 까리브해위기도 조선반도에 조성된 오늘의 정세에는 대비조차 할수 없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삼켜보려고 떼지어 덤벼들며 단말마적인 최후발악을 해대고있다.

가소로운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과 대결한 때로부터 어언 세기가 넘는 지금에 와서도 집요하게 추구해온 대조선적대시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자멸을 앞당기는 자살적인 망동인가를 아직까지 모르고있다는것이다.

불법무법의 《초강도제재》소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세기적인 불사신으로 견인불발케 하고 거축같은 군사적압살공세는 천만군민으로 하여금 선군을 원쑤격멸의 만능보검으로 더욱 으스러지게 틀어쥐게 하며 치떨리는 《제도붕괴》책동은 우리 공화국을 천하으뜸의 최강국으로 무섭게 도약시키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발빠진 늙은 승냥이에 불과한 미국에 머리를 조아리며 《제재》동참과 핵전쟁연습추종으로 제 명줄을 이어보려고 시간을 허송해대는 가련한 세력들도 절처진 진실앞에 피성적으로 사고해볼 필요가 있다.

강권과 전횡, 지배와 예속으로 이 행성에서 독판치는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무작정 추종하고 《유엔결의》로 포장된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동조해나선것으로 귀중한 파저유산과 진흥을 송두리째 말아먹은 대가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하지 못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주와 예속,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반동사이에 추호의 타협도 없이 벌어지는 치렬한 대결을 통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대조선적대시책동이 이 땅에 과연 어떠한 결과를 산생시키고있는가를 만천하에 밝히고저 한다.

1.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완전질식시키려는 남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초강도제재》는 주체조선을 천하에 몰도 없는 자립, 자력, 자강의 위대한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인류의 총악한 원쑤들이 정의와 진보를 말살하고 예속과 불평등을 강요하기 위해 《제재》라는것을 고안해낸 때로부터 무수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한 나라, 한 민족을 대상으로 그 강도와 실행수단, 그 적용수법과 리행기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극악하고 끈질기고 비렬한 전례를 보르고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재》라는 말은 공기처럼 익숙된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이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전쟁공갈로부터 부득불 자위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될 때마다 미국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를 행사하고 자주적인 존엄을 수호하려는 그것을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류의 안전을 해치는 《도발》로 오도해대고 죄 아닌 죄를 날조해대면서 형형색색의 《제재》들을 조작해냈다.

이미 1950년 조선침략전쟁때 미국의 거수기로 전락되어 지울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유엔무대에서 최근년간에만도 《1695호》,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등 수많은 《제재결의》라는 광대극들이 연출되었다.

여기에 《제재시행령》인 미국의 《대통령행정명령》이라는것이 2008년이후 무려 5차례나 발동되고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의 《단독추가제재》 재택놀음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 무슨 국제법위반때문이였는가. 아니다. 자기의 리익을 위해롭게 하는 절망스러운 사태조성때문은 더욱 아니였다.

불의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허위에 동조하지 않으며 강권에 맹종하지 않는다는 오직 그 하나의 리유때문이였다.

명분도, 근거도, 타당성도 전혀 없는 《제재》의 흉악한 마수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그 모든것의 곳곳에 깊숙이 뻗치였다.

철부지아이들의 놀이감과 《주민생계분야》도 《제재》의 주요대상으로 되였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주로 떳떳하고 선군으로 당당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섭게 격노하였다. 백배, 천배, 만배로 끝없이 분발하였다.

귀여운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보다 귀중한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심으로 뭉친 천만군민이 활화산처럼 일떠섰다.

천만부당한 《제재결의》가 채택되는것만큼 자립의 마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자력의 동음을 더 크게 울렸으며 자강으로 흥하는 눈부신 비약을 세계가 보란듯이 펼쳐보였다.

지난 2월 7일 얼어붙은 대지를 찢어발기며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적황색화염과 거대한 메아리는 무지무도한 《제재》소동에 맞선 우리 공화국의 명쾌한 대답이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단단히 일러줄것이 있다.

이 땅에서는 원목을 켜 판자를 만드는것을 제재라고 한다.

우리는 미국이나 적대세력들의 《제재》를 판자를 만들어 멸망의 무덤속에 들어갈 관이나 짜는 어리석은짓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제재》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저들의 종국적파멸만을 촉진하게 된다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반대하는 《제재》가담자들에게 차례질 필연적귀결이다.

2.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남강도 미제의 전대미문의 대조선침략전쟁소동은 미국본토를 임의의 시각에 핵보복타격을 당할수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몰아넣었다.

침략으로 생겨나고 전쟁으로 살쪄온 미국은 군사적 《힘》을 그 어디나 막힘이 없는 《무사통과증》으로, 제 마음대로 무엇이나 해결하는 《명처방》으로 여기고있다.

대조선적대시의 근간으로 되고있는 군사적압살책동도 다를바 없다.

매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려놓는 각종 명목의 크고작은 대조선침략전쟁연습들이 무려 40여차나 된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미국이 얼마나 《힘의 만능》에 사로잡혀있는가를 잘 알수 있을것이다.

이 세상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미국의 군사적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땅에서만은 미국의 군사적 《힘》이 처절한 불운과 비운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있다.

대동강과 보통강반이 그 대표적반증자이다.

대동강에 수장된 《서면》호의 시꺼먼 포탑이 력사의 죄인으로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당하고 《루에블로》호가 족쇄를 차고 만사람의 쓰디쓴 조소를 받으며 보통강반에 묶여있는 현실을 누구나 목격할수 있을것이다.

만약 미국이 저들의 오만무도한 군사적위협과 공갈이 이 미국적수치를 초래하였다는것을 고통스러운대로 자인하고 지혜로운 출로를 모색하였다면 그 이후 조미관계는 다르게 펀져졌을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추종세력들까지 규합하여 세세년년 날과 달을 이어가며 대조선압살이라는 힘의 광란에 매달려왔다.

항시적인 군사적압살공세는 불가항력적인 군사적대응조치를 유발시키기 마련이다.

현재 우리 군대가 1만 수천km밖에 있는 미국을 조준경안에 잡아넣고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마음먹은대로 두들겨팰수 있게 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다른 설명이 필요없을것이다.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통속적인 조선속담 그대로였다.

일격필살의 타격력을 소유한 우리의 군사적위력은 이 행성의 《절대병기》로 통칭되는 수소탄까지 갖춘 세계최강의 지위에 올라섰다.

미국이 현실을 투시하는 정상적인 사유기능을 가졌더라면 변화된 움직임을 보였을것이다.

《힘이 곧 정의》라는 환각에 사로잡혀있는 미국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난 3월 7일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침략군 2만 7 000여명과 남조선괴뢰군 30만여명, 추종국가군대들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 《스테니스》호핵항공모함타격단, 《본홈 리차드》호와 《루씨》호상륙준비단, 《노스캐롤라이너》호핵동력잠수함, 사전장비적재함선전단, 《B-52》핵전략폭격기, 《F-22A》스텔스전투기, 해외침략전쟁터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의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거의 모든 특수작전무력들과 이른바 《족집게식타격》무력이 총투입되였다.

세계 그 어느 지역,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방대한 침략무력이 집결전개된 적도, 극도로 모험적인 전쟁각본에 준한 실동연습이 진행된적도 없었다.

우리의 핵 및 전략로케트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명령권자》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참수작전》까지 꺼리낌없이 공개해낸 호전광들에 의해 전쟁은 더 이상 피할수 없게 되였다.

분별을 잃은 호전광들의 정치망동을 선군조선이 어떠한 불퇴성으로 가차없이 진압하였는가를 다시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실동적인 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16》개시에 전격적인 핵무기병기화선언과 탄도로케트의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으로, 포항상륙과 《북종심 및 평양진격작전》연습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련속적인 각종 류형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과 기습적인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으로, 공중비적들의 무모한 《핵심부정밀타격》훈련에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으로 침략자들의 정수리를 불이 번쩍나게 후려쳤다.

력대 최대규모로 벌려놓은 이번 연습은 미국본토를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최악의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지상과 해상, 수중과 공중에서 미국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우리 식의 최첨단공격수단을 다 갖춘 우리 군대가 남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이 《이 세상이 상상할수 없는 기상천외한 보복전》으로 될것이며 《만가지 악의 소굴》이 이 행성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재가루로 만들어놓을것》이라는 따웅소리를 내지른것은 무심히 스쳐지날 일이 아니다.

결국 전대미문의 대조선군사적압살공세가 미국에 가장 참혹하고 가장 처절한 최후멸망의 비극적말로를 안겨주게 된것이다.

명백한것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힘의 과시》에 매달릴수록 미국본토를 핵참화속에 몰아넣고 이 행성에서 지리멸렬하는 길을 앞당기게 된다는것이다.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도 미국에 편승하여 대조선압살에 광분할수록 무자비한 보복세례만을 스스로 불러오게 된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살에 발광하는 침략자들에게 주어진 피할수 없는 숙명이고 말로이다.

3. 우리 공화국을 분렬와해시키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도전복》책동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체제를 자기 시대를 다 산 력사의 퇴행물로 떨어던지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한 뉴스웨브싸이트에는 《자본주의는 더러운 사회》라는 제목으로 《…2015년 한해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찾고 쓰인 단어가 바로 사회주의이다. 미국시애틀시의회선거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선력당이 승리한것은 미국사회에 대한 반항의식이 커가고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는 글이 실렸다.

세계자본주의의 원흉인 미국의 한복판에 사회주의선택당이 대두한 이 사실이 세계에 던진 의미는 매우 크다.

사회발전의 필연이며 파악인 사회주의에 떠밀려 자본주의 낡은 수레가 력사의 뒤골목길로 사라지고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확증된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시켜보겠다고 한두해도 아니고 70여년간이나 발광해대는것이야말로 희비극의 극치로 된다.

악욕강식의 오만과 독선, 양키식전횡과 강권에 찌든 미국은 아직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있다.

우리 인민이 무엇때문에 사회주의를 자기 생명이고 생활이라고 목메여 부르는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참다운 보금자리라고 그토록 눈물겹게 안겨드는지 초보적인 리해도 할수 없는것이 미국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엇때문에 3일, 3개월, 3년이면 무너뜨릴수 있다는 허망한 《3. 3. 3붕괴론》이며 지속적인 고립압살을 가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연착륙론》이며 언제든지 기다리느라면 반드시 사회주의기치를 내리우게 되리라는 망상적인 《전략적인내론》따위에 한사코 매달렸겠는가.

미국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눈에 든 가시로, 세계제패의 걸림돌로 여기며 어떻게 하나 《붕괴》시켜보려고 참으로 비렬하고 유치하게 놀아대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미제의 피수 오바마만 놓고보아도 《쏘니 픽처스》사건의 《북해킹》이라는 모략극을 날조해내고 우리 공화국을 《가장 고립되고 가장 단절되고 가장 잔혹한 국가》라고 악의에 차 헐뜯어대면서 《북붕괴》실행이라는 국가정치테로행위를 저질러댔다.

명색이 《유일초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터무니없는 《인권》소동의 어리광대역을 놀아대고 비루먹은 개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각종 모략극을 날조하고 반공화국삐라까지 살포하도록 조종하고있는것이다.

《제도전복》에 현혹된 나머지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려대는 천인공노할 악행도 저러지 않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천벌받을 만고대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참고참아오던 마지막인내의 탕개마저 끊어버리게 하였다.

이 땅이 하나의 시슬루본 총점으로, 원쑤증오의 분화구로 되였다.

우리 전략군의 핵타격수단들은 악의 화근인 미국본토를 이 행성에서 매장해버리기 위한 최후결전에 진입하였다.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침해하는 극한계선을 넘어선다면 기필코 아직까지 당해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제반 사실들이 립증해주듯이 미국주도하의 불순적대세력들이 강행하고있는 《초강도제재》와 군사적압박, 《제도전복》으로 특징지어지는 대조선적대시책동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주고있다.

협악하게 번져지는 현 사태를 무고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압박보다 협상마련이 근본해결책이며 부질없는 《제도전복》보다 무조건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조성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아무리 먹장구름이 밀려들어도 저 하늘의 찬란한 태양만은 절대로 가리우지 못하는 법이다.

이 세상의 온갖 적대세력들이 악을 쓰며 덤벼들어도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전두에 모시고 필승의 선군대로로 질풍쳐나가는 백두산대국의 노도와 같은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영원한 승리는 우리에게, 만회할수 없는 참패는 미국에게, 바로 이것이 조미대결의 불변의 법칙이다.

인류는 우리 백두산대국이 자주의 등대, 정의와 진리의 상징으로 어떻게 빛나는가를 가슴후련히 보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4월 3일

평 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하노이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쩐 다 이 꽝 동 지

나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인민회의 제13기 제11차회의에서 당신이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속에서 계속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4월 2일 평 양

당의 높은 뜻 받들고 봉사활동을 더 잘해나가자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미래상점 지배인 김남숙의 보고에 이어 종합봉사기지 책임부원 장태심, 부원 류춘희, 미래상점 총장 공애라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찾으시여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선 미래상점이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운영준비를 완벽하게 갖춘것만큼 하루빨리 상점문을 열어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인민들도 찾아와 마음껏 상품을 사가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특색있게 꾸려진 식사실들과 남녀목욕탕, 물놀이장, 리발실, 미용실 등 봉사기지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건축형식에 있어서나 시공의 질에 있어서 나무랄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태양절을 맞으며 문을 열도록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의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설계와 시공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정말 잘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설계와 시공을 맡아 진행한 단위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종업원들이 인민의 복무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절사관철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봉사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잘하여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인민들의 요구가 곧 봉사활동의 기준이라는 관점밑에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봉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상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과 함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선진적인 봉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봉사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봉사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우리 나라 봉사부문에서 제일 모범적인 단위로, 인민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되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1면에서 계속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전투명령을 받아안고 려명거리건설장에 달려온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가슴은 영웅조선의 새로운 건설신화를 창조해나갈 결사의 의지로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창한 대건설전투의 맨 앞장에 군인건설자들을 내세워주신것은 미래파학자거리건설에서 놀라운 기적을 안아온 인민군대가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려명거리건설에서도 세계가 알지 못하는 만리마속도, 주체조선의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할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의 표시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천하무도한 망동짓을 감행한 남강도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철야전군을 힘있게 다그쳐 려명거리를 올해중에 반드시 일떠세움으로써 당중앙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사보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돌격대원들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건설장마다에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별, 주별, 월별전투계획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우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집행하며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높이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여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지휘성원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앞장에서 대오를 이끌어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하고 작전과 지휘를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하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온 건설장이 경쟁열풍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려명거리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주체적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거리, 사회주의문명국의 제모에 맞는 공산주의리상거리,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만점짜리 거리로 훌륭히 일떠세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착공식에서는 명세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노래주악으로 착공식은 끝났다.

이어 참가자들은 70층살림집건설장에서 려명거리건설의 첫삽을 박았다.

【조선중앙통신】

후방사업에서 일군들의 관점이 중요하다

황북종합대학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총정의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창조적열정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황북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힘을 넣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먼저외선에 의한 파고루말류공정과 갱안에서 쓰이는 가스정화장치, 저즙위미팡에서 유가팡물을 회수하는 액면-혼화부선기, 세멘트경화제 등을 자체의 힘으로 개발 및 제작하는데 성공한데 이어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물리탐사기구도 설계제작하여 현실에 도입하는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을 안아온 중요한 비결이 있다. 우리는 후방사업을 대하는 이곳 일군들의 관점문제에서 그 비결의 하나를 찾아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대학당위원회 책임일군으로 임명된 권승찬동무는 대학의 전반사업을 료해하는 과정에 스쳐보낼수 없는 하나의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대학의 후방사업토대가 매우 빈약한것이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후방사업을 대하는 대학일군들의 관점과 태도였다.

권승찬동무가 축산기지건설을 발기하였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은 부족한것이 많은 때에 일판을 크게 벌려놓았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면서 주저하는 의향을 내비쳤다. 어떻게 해서나 자기 힘으로 꼭 성공해야 한다는 각오보다도 어려운 조건만 내걸고 신심이 없어하는 태도가 문제였다.

일군들의 이런 관점과 태도부터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권승찬동무는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후방사업이자 곧 정치사업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확고한 관점에서 달라붙어야 한다. 자력자강을 떠나 사회주의수호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일군들이 앞장에서 자강력이 제일임을 실천으로 증명하자.

당일군의 절절한 호소는 협의회참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렸다. 하여 축산기지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대학자체의 힘으로 축산기지건설을 밀고나간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았다.

건설은 물론 축산을 해본 경험도 부족하였지만 대학의 일군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여 절린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당일군들부터 앞장에 서서 낮에 밤을 이어 건설전투를 벌렸고 밤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생산성이 높은 종자돼지들도 구해오는 한편 축산기지를 실리있게 짓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해나갔다.

투쟁한 보람이 있어 단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축산기지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었다.

이렇게 건설한 기지에서 첫 생산물이 나왔을 때 이들의 기쁨은 이를데 없이 컸다. 그것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식탁을 윤택하게 해주었다.

이것은 그대로 교육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자고 임버릇처럼 외우던 몇떡마디의 말들을 대신한 생동한 정치사업이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학의 일군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련이어 펼쳐나갔다.

적은 지출로 최대한의 실리를!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모든것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벌려나갔다. 실례로 남새온실부지를 선정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수 있다. 부지선정문제를 놓고 일군들속에서 론의가 분분하였다. 그도그럴것이 해가 잘 드는 양지쪽으로 온실을 건설하여야 하겠는데 맞춤한 자리가 없었던것이다. 그런 자리는 좀 작거나 반대로 널직한 곳은 해비침률이 적었다. 그렇다고 온실을 구내의 여기저기에 널려놓을수는 없었다.

모두가 조건을 따져보며 옳은 방도를 내놓지 못하고있을 때 당일군이 좋은 안을 내놓았다. 건물의 지붕우에 온실을 건설하자는것이였다. 구체적으로 타산해보니 해비침률이나 면적상에 있어서 그만한 명당자리는 없었다. 그가 건물의 안정성에 대하여 그리고 앞선 시공방법을 받아들이면 건설자재도 훨씬 절약할수 있다고 조리있게 말하였을 때 일군들은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후방사업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심했으면 이런 좋은 착상을 하였겠는가 하는 생각에 모두의 가슴이 젖어들었다.

그때 대학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어려운 조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서려는 자각과 의지가 확실히 부족했음을 깨달았던것이다. 이를 계기로 일군들은 더욱 분발해서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학에서 해마다 수십t의 먹이풀을 생산할수 있게 된것도, 많은 물고기를 놓아기를수 있는 큰단백물서식장을 짧은 기간에 꾸려놓을수 있게 된것도 그리고 식당과 기숙사개건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도 다 일군들의 후방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결실들이다.

그것이 대중의 정신력을 추동하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되여 대학의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안아오게 했던것이다.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70일전투에서도 전례없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 이곳 대학일군들의 사업경험이 시사해주는바는 참으로 크다.

본사기자 엄명석

상원의 두 영웅작업반장

한날한시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김명호, 림봉운동무들에 대한 이야기

70일전투가 한창인 지난 3월 9일 상원땅에 경사가 났다.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현지에서 성대히 진행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세멘트직장 수리작업반 반장 김명호동무는 제대군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상원땅에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가 일떠서던 때에 그는 군사복무를 하고있었다.

그가 일하고있는 조국땅 북변의 한 건설장에 세멘트를 가득실은 화물자동차들이 나타났다. 건설의 식량이라고 말할수 있는 세멘트의 도착에 군인건설자들은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그때 김명호동무는 석재함에 무뚝히 쌓인 세멘트포대마다에 씌여진 《상원세멘트》라는 글발을 보게 되였다. 순간 심장이 후두둑 뛰였다. 상원천기슭에 요란한 세멘트공장이 건설되였다는것을 말로만 전해들었던 그였다.

(우리 고향땅에서 나는 세멘트가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고향의 세멘트는 그가 가는 건설장들을 계속 찾아왔다. 사회주의건설장 어디서나 높아가는 상원세멘트에 대한 감탄은 그의 입술에 먼개불이 일게 하였다. 깊은 밤 단잠에 들 때면 그는 고향에 일떠선 웅장한 세멘트생산기지의 모습을 꿈에 보았다.

그러던 어느날 휴식참에 그가 속한 중대에서는 병사들의 고향을 자랑하는 모임이 열렸다.

김명호동무가 중대원들앞에 나섰다. 그의 손에는 흰종이에 싼 한줌가량의 세멘트가 들려져있었다.

《동무들도 다 알겠지만 이 세멘트는 저의 고향 상원땅에서 온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새로 일떠세워주신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로 하여 저의 고향은 온 나라가 다 아는 고장, 온 나라에 덕을 주는 자랑많은 병사의 고향으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아름답게 꽃피워주신 고향의 새 자랑은 군인건설자 김명호에게 다음번 인생행로를 정해주었다.

1996년 봄, 그는 제대되여 고향으로 왔다. 나서자란 정든 집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로동계급의 새 일터, 보람찬 삶의 고향을 향하여!

소성직장 랭각기1작업반 반장 림봉운동무는 김명호동무보다 8년 앞서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로 왔다. 그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였다.

순천시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국가적조치에 의하여 련합기업소로 오게 된 그의 수수한 트렁크속에는 갈음옷 몇벌과 간단한 생활도구가 들어있었다. 상원땅이 어떤 곳인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얼마나 중요한 김명호동무와 소성직장 랭각기1작업반 반장 림봉운동무!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수십년세월 묵묵히 조국의 일터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충직하게 지켜왔으며 당정책결사관철에서 로동자집단의 기수가 되고 맑은 거울이 된 두 작업반장에게 우리 조국은 로력영웅칭호를 안겨주었다.

두 작업반장의 가슴에 빛나는 영웅메달, 바로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고귀한 부름앞에 켯켯이 나설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훌륭한 대답이 있다.

두 영웅의 고향

사람에게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만 한 정든 일터가 있다는것은 하나의 큰 행복이다. 김명호, 림봉운영웅작업반장들은 그 행복을 인생의 전부로 간직해왔다.

세멘트직장 수리작업반 반장 김명호동무는 제대군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상원땅에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가 일떠서던 때에 그는 군사복무를 하고있었다.

그가 일하고있는 조국땅 북변의 한 건설장에 세멘트를 가득실은 화물자동차들이 나타났다. 건설의 식량이라고 말할수 있는 세멘트의 도착에 군인건설자들은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그때 김명호동무는 석재함에 무뚝히 쌓인 세멘트포대마다에 씌여진 《상원세멘트》라는 글발을 보게 되였다. 순간 심장이 후두둑 뛰였다. 상원천기슭에 요란한 세멘트공장이 건설되였다는것을 말로만 전해들었던 그였다.

(우리 고향땅에서 나는 세멘트가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고향의 세멘트는 그가 가는 건설장들을 계속 찾아왔다. 사회주의건설장 어디서나 높아가는 상원세멘트에 대한 감탄은 그의 입술에 먼개불이 일게 하였다. 깊은 밤 단잠에 들 때면 그는 고향에 일떠선 웅장한 세멘트생산기지의 모습을 꿈에 보았다.

그러던 어느날 휴식참에 그가 속한 중대에서는 병사들의 고향을 자랑하는 모임이 열렸다.

김명호동무가 중대원들앞에 나섰다. 그의 손에는 흰종이에 싼 한줌가량의 세멘트가 들려져있었다.

《동무들도 다 알겠지만 이 세멘트는 저의 고향 상원땅에서 온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새로 일떠세워주신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로 하여 저의 고향은 온 나라가 다 아는 고장, 온 나라에 덕을 주는 자랑많은 병사의 고향으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아름답게 꽃피워주신 고향의 새 자랑은 군인건설자 김명호에게 다음번 인생행로를 정해주었다.

1996년 봄, 그는 제대되여 고향으로 왔다. 나서자란 정든 집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로동계급의 새 일터, 보람찬 삶의 고향을 향하여!

소성직장 랭각기1작업반 반장 림봉운동무는 김명호동무보다 8년 앞서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로 왔다. 그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였다.

순천시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국가적조치에 의하여 련합기업소로 오게 된 그의 수수한 트렁크속에는 갈음옷 몇벌과 간단한 생활도구가 들어있었다. 상원땅이 어떤 곳인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땜시, 옷땜시를 보고 한생의 길동무를 택하지 않았다. 자기와 같이 상원땅의 영광의 일터를 사랑하고 거기에 깊은 정을 쏟는 은전풍처녀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로 생각되였기에 그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신혼살림에 깨가 쏟아진다는 말이 있지만 그 시절 림봉운동무가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것은 로동자부부인 자기들이 어깨나란히 희망찬 출근길에 나서고 하나의 일터에 땀을 바치며 하루의 로동으로 가슴벅찬 퇴근길에 또다시 함께 오르는것이였다.

그들가정에 세 남매가 태여난지 얼마 안있어 양연옥녀성은 신병으로 로동생활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때 림봉운동무는 누구보다 괴로와했다. 평상시 남의것이란 털끝만치도 넘겨다본적이 없는 그가 마음속으로 부러운것이 있었다면 온 가족이 위대한 장군님을 명예지배인으로 높이 모신 련합기업소종업원이라는 영예속에 살고 혁신자의 대오에 나란히 서는 보람이였다.

그후 림봉운동무는 명절날, 휴식날이면 소학교에 다니는 딸들과 어린 아들을 데리고 련합기업소에 깃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

전문학교(당시)를 나온 맏딸 림정심에 이어 중학교를 졸업한 둘째딸 림효심이 련합기업소에서 일하게 된 날 림봉운동무는 자기를 가르치던 어제날의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했다.

《오늘 로동계급의 출생증을 받은셈이다. 로동자에게 있어서 공장은 다시 태여난 고향이고 영원히 받들어야 할 조국이다.》

로동자의 고향,

정녕 김명호, 림봉운동무들에게 있어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보람찬 인생의 태줄을 묻고 한생의 정을 깡그리 쏟아부으며 그 삶의 바통을 줄기차게 이어갈 후대까지도 다 맡긴 참으로 소중한 고향이였다.

열렬히 사랑한것만큼 공장은 모든 영광을 다 안겨주었다. 당이 마련해준 새 삶의 고향인 공장에서 그들은 고급기능공으로, 참된 로동계급으로, 당원으로 자랐다. 그 나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혁명의 대를 줏줏이 이어갈 자식들도 태여났으며 오늘은 로력영웅이 되였다.

평가를 바라서가 아니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세멘트직장의 분쇄기가 특대형감속기고장으로 가동을 멈추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느 한 나라 기업체에서는 특수한 장비와 기술이 아니고서는 그 설비를 해체조차 할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네한테 설비를 통채로 실어오라고 오만한 권고를 하였다.

상원의 로동계급은 고장난 설비를 복구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련합기업소의 실력있는 기술자들과 고급기능공들로 특대형감속기를 분해하고 새 축을 갈아맞추기 위한 절사대가 무어졌다.

천 수리작업반 반장인 박철호아바이도 그중의 한사람이였다. 감속기보수가 시작된 첫날 전투현장으로 향하는 그를 누군가가 막아나섰다.

《저를 절사대에 망라시켜주십시오.》

새로 온지 몇달 안되는 김명호동무였다. 기계내속은 짬짬인 그가 나서는것이 어이없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여 박철호작업반장은 자신있는가고 되물었다.

《해우겠습니다.》

쇠소리나는 그의 대답에 작업반장은 신입로동자의 어깨를 씩 내리쳤다.

《덴장아! 궁냥도 배짱에서 나오는 법이지.》

다음날부터 김명호동무는 오랜 수리공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보수전투현장에 나갔다.

민족의 존엄을 걸고 떨쳐나선 상원의 로동계급의 열화같은 심장과 비상한 두뇌에서는 보통때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대담하고 기발한 보수안들이 련이어 쏟아져나왔다. 매일같이 제시되는 혁신적인 창의고안들을 대할 때마다 김명호동무의 가슴은 높뛰였다.

어느날 그는 여러날째 궁리한것을 박철호작업반장에게 털어놓았다. 감속기속에서 대형치차를 뽑을 때 그에 맞는 자끼를 만들어 설치하는것이 어떤가 하는것이였다. 좋은 생각이였다. 하지만 그것이 특대형감속기속해체에 실지로 이바지하는 혁신적인 기술안으로 완성되기까지에는 작업반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합쳐져야만 하였다. 신입로동자이지만 자기도 상원로동계급의 한 사람이라는 열렬한 자각으로부터 뿌리내리고 싹트는 김명호동무의 때땡과 탐구심을 로동자들은 소중히 받아들이고 위해주었다. 그 진정넘친 응심에 떠받들려 김명호동무는 감속기속의 조립에서 최대한 정밀도를 보장하기 위한 측정지구를 설치할데 대한 발기를 또다시 내놓았다.

감속기보수전투가 마감단계에서 다그쳐지던 어느날 감속기고장문제를 론의하였던 다른 나라 기업체에서 기술자를 우리 나라에 파견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기술자는 전부 정확히 분해되여있는 특대형감속기를 보자 이연함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는 해체되였던 감속기가 다시 말끔히 조립되여 부하시험에 들어간것을 보게 되였다. 이연해하던 기술자는 창황 돌아가는 설비들의 가동상태를 따져보고나서 말했다. 우리가 당신들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 당신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며 정말 고급한 기술자들이다. 당신들의 용감성과 높은 기술, 담대한 때땡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에서만 생겨날수 있는것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기념으로 조선의 국기 공화국기발을 가져가고싶다. …

상원의 로동계급이 주체사상의 위력과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힘있게 과시한 그 나날은 김명호동무의 마음속에 나라의 자존심과 명예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로동자의 때땡과 책임감에 대한 진리를 깊이깊이 심어주었다. 이 초소에, 세멘트직장의 대형설비들에 바로 로동자 김명호가 꼭 필요하다는 남다른 책임감을 안고 그는 수리공의 순회점검길에 로동계급의 량심과 성실성을 수놓아갔다.

세멘트직장 수리작업반이 맡고있는 설비들은 대부분이 여러층의 건물만큼 높은 대형설비들인것으로 하여 그들의 순회길은 가파로운 쇠층계들로 이어지거나 해빛 한점 스며들지 않는 지하구조물로 갈래갈래 뻗어있다.

안테나처럼 생긴 길다란 점검봉을 들고 이 철치 않은 순회점검길을 걸을 때마다 그는 자신을 기계의 병을 진단하는 기계의사로 여겼다. 동음의 미세한 변화로 보이지 않는 아픔을 호소하는 기계의 언어를 알아듣기 위하여 낮이나 밤이나 설비들의 동음에 귀기울이고 상태에 따르는 동음변화의 특성을 수첩에 적어넣으며 사색과 탐구의 길을 이어간 김명호동무.

그에게 있어서 설비들의 동음을 듣고 비정상적요소를 가려내는데 쓰이는 점검봉은 볼도 없는 귀중한 보배였다.

직장의 설비들이 잘 돌아간다고 하여 언제 한번 순회점검을 소홀히 한적 없고 명절날, 휴식날에도 점검봉을 들고 직장을 돌아보고서야 마음을 놓은 이 나날속에 그는 남달리 눈빛과 청각이 예리해지고 수리기능이 어물어졌다.

기계속을 환히 꿰들어 많은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내는 그였지만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꾸준히 기술을 배웠다.

20년간 빈칸이 하나도 없는 김명호동무의 출근부에는 이런 사연들이 기록되여있지 않지만 그의 땀이 스민 순회점검길과 로동자들의 추억속에는 고스란히 간직되여있었다.

고난의 시기 두 자식을 뜻밖에 잃은 뼈아픈 슬픔을 안고도 손때묻은 점검봉을 들고 한기대 또 한기대 매 설비들의 동음에 귀기울이던 김명호동무의 모습을 세멘트직장 로동자들은 오늘도 잊지 못한다.

세멘트직장 직장장 최인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명호 수리작업반 반장동무는 직장에 정말 없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의 순회점검에 순결한 량심을 바쳐온 김명호동무는 어려차례나 특대형사고로 번져질번 한 사고요소를 미리 찾아내여 대책을 세움으로써 세멘트생산의 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는 수많은 일터와 초소가 있다. 설사 그것이 크든작든 어느 하나라도 숨을 죽인다면 온 련합기업소의 동음이 멎는다. 그 초소들중 하나를 다름아닌 자기자신이 지켜섰다는 자각이 김명호동무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일터와 하나의 운명체로 결합시키고 기업소에 없어서는 안될 로동자로 성장하게 하여주었다.

소성직장 랭각기1작업반 반장 림봉운동무 역시 랭각기운전공은 소성로라는 련합기업소의 심장부를 지키는 책임적인 로동자라고 생각하며 지금껏 일해왔다.

소성직장의 소성로에서 구워진 크링카를 금랭시켜 세멘트직장의 분쇄공정으로 보내는 일을 랭각기가 맡아한다. 크링카를 나르는 랭각기의 밑붙판이 빠지거나 소성로에서 떨어진 크링카응용물이 랭각기와 잇닿은 소성로벽밑에 쌓인것을 제때에 까내지 못하면 소성로는 크링카라는 《피》를 더이상 뿜어내지 못하고 멎어서야만 했다.

몇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수명이 다된 낡은 랭각기의 밑붙판 하나가 뜻밖에 빠져버렸던것이다. 기존방식대로 하자면 48시간동안 소성로를 세워 로를 식힌 다음 랭각기에 들어가 불관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하였다.

일단 로를 세웠다. 그런데 한 초한초 시간이 흘러갈수록 림봉운동무의 가슴은 빠질빠질 타들었다. 전국각지의 건설장들에서 세멘트, 세멘트 하고 찾는 소리가 그의 고막을 세차게 때렸다. 온 나라에 울려퍼지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벅찬 동음이 자기들이 맡고있는 랭각기로 인하여 멎어서야 되겠는가.

림봉운동무는 헌 솜옷을 머리에 뒤집어썼다. 그리고는 불판을 찾아들고 랭각기안에 뛰여들었다. 소성로에서 금방 나온 이글거리는 크링카들이 그의 발밑에서 신발을 뿌직뿌직 태우며 검누른 연기를 피워올렸다. …

림봉운동무의 로동생활 28년간에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다. 지어는 소성로를 멈추지 않고 랭각기의 제일 안쪽인 화염이 이글거리는 1실과 2실에 뛰여들어 위험한 설비사고를 미리막은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림봉운동무는 언제 한번 자기의 소행이 영웅적위훈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저 랭각기운전공의 본분을 다한 평범한 로동생활의 하루일로 여겼을뿐이였다. 림봉운동무가 수백℃의 열에 서슴없이 자기 한몸을 내맡길 때, 낮이나 밤이나 대형설비를 지켜 폭잠에 들고 찬밥을 물에 말아먹을 때 후날 영웅이 되리라고 과연 생각이나 했던가.

자기가 일하는 초소가 크든작든, 그 직종이 및이 나든 안나든 그것은 공장의 생명선이며 조국의 전진과 직접 잇닿아있다는 숭고한 정신이 심장의 박동과도 같이 언제나 세차게 높뛰였을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는 일도, 성격도 서로 다른 두 영웅작업반장에게서 우리가 찾아보게 된 참된 로동자의 공통적인 성격이였다.

내가 이 초소에 없으면 공장이 멎고 공장이 멎으면 나라가 전진을 멈춘다는 혁명임무에 대한 비상한 책임성, 성실성이 김명호, 림봉운동무들을 수십년간의 만근자, 코고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남보르는 위훈자, 자각적인 기술혁신창의고안자로 되게 하였으며 맡은 일에 정통하고 현장에서 막히는것이 없는 《박사》들로 되게 하였다.

전화의 날 불붙는 적의 화점을 막아 돌격로를 연 전사도 영웅이다.

하다면 평상시에는 눈에 잘 띄우지 않아도 뜻밖의 정황이 생길 때 꼭 찾게 되는 사람, 그가 있어야만 공장의 무사고와 끊임없는 증산이 담보되는 그런 사람의 위훈은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근무년한의 순간순간에 자기 일터를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필요하다면 목숨도 서슴없이 내던 참된 로동계급의 진정을 우리 당은 로력영웅의 금메달로 빛내여주었다.

공장의 믿음직한 주추돌—작업반장

작업반장은 공장의 기층말단에서 로동자들을 책임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작업반장도 로동자이지만 사람들은 작업반장이라는 직무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건설력사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위대한 천리마운동도 천리마작업반운동과 함께 더욱 심화되였으며 첫 천리마작업반도 건동원이라는 한 영웅작업반장의 이름과 결부되여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지고있다.

이런 작업반장의 의무를 다한다는것은 결코 쉽지 않다.

련합기업소에 조직된 첫 랭각기1작업반의 막내였던 림봉운동무가 이 작업반의 5대 작업반장으로 임명된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의 일이다.

그때 림봉운동무는 저으기 당황하였다. 작업반원이 그리 많지는 않아도 그들을 이끄는 일은 어쩐지 자신심이 생기지 않았다. 그는 이런 심정을 생산현장에 나온 련합기업소의 한 일군에게 터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난 일군은 말했다.

《동무야 당원이 아니요. 자기 한몸을 내대여 일을 잘하는것만으로는 당원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소. 모든 작업반원들을 동무와 같은 기능공으로, 동무와 같은 책임적이고 훌륭한 로동자로 키워야 하오. 그래야 더 많은 세멘트가 나올게 아니겠소.》

다음날 일군은 다시 찾아왔다. 그는 책 한권을 내놓았다. 작업반장, 직장장의 역할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들을 발취하여 적어넣었는데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것이였다.

하루작업이 끝난 후 림봉운동무는 그 책을 펼쳐들었다. 구절구절을 읽어내려가느라니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방안을 꽉 채우는것만 같았다.

《집이 튼튼하자면 기초를 잘 다지는것이 중요합니다. 경제관리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서는 작업반장학교, 직장장학교부터 내와야 합니다. 작업반장이나 직장장이 일을 잘하여야 공장, 기업소가 제대로 운영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0년대에 작업반장들을 키우는 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하신 뜻깊은 교시였다.

그이께서 일찌기 근로대중과 함께 있으며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일하고 생활하는 작업반장

김명호동무(왼쪽), 림봉운동무(오른쪽)

하모임에는 매번 작업반원들을 떠밀어보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작업반원 누구나 맡은 일에 들어서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실하고 헌신적인 로동자로, 한번의 설비점검에도 로동계급의 깨끗한 량심을 담는 소성직장의 기둥감으로 성장한데는 림봉운작업반장이라는 튼튼한 주추돌이 고여있다.

김명호동무도 마찬가지이다. 고지식하고 청렴결백하며 집단을 위해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쌍그리 바쳐온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세멘트직장 수리작업반은 련합기업소적으로 기술력량이 제일 강한 집단, 아무리 어려운 수리과제도 막힘없이 해제끼는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자라났다.

작업반의 기둥이며 공장의 주추돌인 작업반장, 로동계급집단에서 잠시도 비워둘수 없는 제일 중요하고 무거운 직무인 작업반장!

나라의 방방곡곡의 크고작은 초소와 일터를 말없이 헌신적으로 지켜가는 수천수만의 작업반장들이 있어 날에날마다 이 땅에 수많은 물질적부가 창조되고 기적과 위훈이 나래치며 조국은 찬명한 래일로 힘차게 전진하는것이다.

영웅작업반장!

그것이야말로 로동계급으로서 지닐수 있는 값높은 칭호가 아니겠는가.

련합기업소의 수천명 종업원들가운데 두 영웅작업반장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두 영웅조차 이번 수여식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은 마치 공기처럼 꼭 필요하면서도 눈에 뜨이지 않았기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조국은 생산현장에서, 로동자대중속에서 남모르게 세워가는 그들의 위훈을 속속들이 헤아려 알가슴에 영웅의 금메달을 달아주었다.

《영웅이 된 작업반장동지를 축하합니다.》

알가슴에 금메달을 번쩍이며 일터로 돌아온 두 로력영웅을 세멘트직장 수리작업반원들과 소성직장의 랭각기1작업반원들이 반겨맞았다. 이제는 그들이 영웅의 작업반으로 불리우게 된것이다. 로동자영웅의 작업반, 이 얼마나 크나큰 영광인가.

상원군 명탕로동자구 117인민반의 인민반원들, 림봉운동무와 한아빠트에 사는 련합기업소종업원가족들은 영웅메달을 달고 오는 그를 환영하기 위해 날이 저물도록 현관앞에서 기다렸다.

기쁨도 다같이, 좋은 일도 다같이 함께 누리는 고결한 집단, 당의 품에서 참되게 자란 우리의 로동계급을 대견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이였다.

(땀흘려 일하는 로동자들이 제일먼저 영웅으로 떠받들리우는 이 나라, 이 제도, 이 시대는 얼마나 좋은가.)

그들의 두볼에도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 *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을 받아안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오늘의 70일전투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위훈을 아로새겨가고있다.

지난 3월말까지 상원의 로동계급은 1.4분기계획을 119.7%로 넘쳐 수행하는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로동계급의 자랑인 상원의 두 영웅작업반장을 낳은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 생산자들만이 아닌 수천수만의 온 나라 전체 로동계급은 70일전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값높은 칭호, 최상최대의 믿음에 보답하자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전국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당과 조국을 충정의 억센 기둥, 만년주추돌이 되여 굳건히 받들어왔으며 혁명이 준엄할 때에도, 조국건설의 번영기에도 당정책을 끝까지 결사관철한 우리의 로동계급.

그들이 있어 우리 조국과 혁명은 힘차게 전진한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장으로 수많은 로동자영웅들이 70일전투의 승리자가 된 긍지와 자랑을 안고 보무당당히 들어설 그날이 우리의 눈앞에 보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허명숙

우리 선수들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제1위, 종합우승컵과 25개의 금메달 쟁취

우리 선수들이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제1위, 종합우승컵과 금메달 25개를 포함한 32개의 메달을 쟁취하고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였다.

지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까자흐스딴의 알마띠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16개 나라의 남, 녀선수 25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투지, 높은 육체적능력과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여 선수권대회에서 훌륭한 경기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남, 녀단체틀경기에서 1등을 하였다.

림위석선수는 남자개인 1단틀, 김철학선수는 남자개인 2단틀, 림주혁선수는 남자개인 3단틀, 김남수선수는 남자개인 4단틀, 함수경선수는 녀자개인 1단틀, 박미향선수는 녀자개인 2단틀, 김향심선수는 녀자개인 3단틀, 김지향선수는 녀자개인 4단틀경기에서 우승하였다.

우리 나라 선수들은 남, 녀단체맞서기경기에서도 1위를 한데 이어 림위석선수가 남자개인맞서기 85kg이상급경기에서, 김향심, 주옥, 박미향, 함수경, 김수련, 최수련선수들이 녀자개인맞서기 57kg급, 51kg급, 63kg급, 69kg급, 75kg급, 75kg이상급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녀자개인특기경기에서 박미향선수가, 녀자개인위력경기에서 함수경선수가 우승하였다.

녀자단체호신경기, 녀자단체특기경기에서와 남, 녀단체위력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1위를 하였다.

또한 남자개인맞서기 64kg급, 71kg급경기에서 림주혁, 하금광선수들이, 남자개인위력경기에서 리림혼선수가, 남자단체호신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각각 은메달을, 남자개인맞서기 57kg급, 85kg급경기에서 김철학, 김남수선수들과 남자개인특기경기에서 하금광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받았다.

우리 선수들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쟁취하고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영예의 제1위를 함으로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력사상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친 태권도선수들이 3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선수, 감독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그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승리의 보고를 안고 만수대언덕에 오른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국제무대에서 우리 태권도선수, 감독들이 거둔 성과는 총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해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승리자, 그 부름앞에 떳떳이

총정의 70일전투의 하루하루가 흐를수록 불등탄광의 갱막장마다에 위훈창조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번지고있다. 탄광적인 하루 석탄생산실적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일약 1.5배이상 뛰여오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발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탄부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장홍식, 한순명동무들을 비롯한 탄광일군들은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일정대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구호들과 표어들, 대형속보판들이 전투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탄광기동예술선동대와 가두녀맹원들이 힘있게 울리는 북소리, 나팔소리,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격동적인 경제선동의 목소리들은 탄부들의 증산열의를 한껏 북돋아주었다.

승리의 5월이 우리를 부른다.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영웅적위훈으로 빛내이자!

이런 결의로 심장을 끓이며 보장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가두녀맹원들까지 떨쳐나섰다.

따라앉아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속에 탄광적으로 매일 계획보다 수백t의 석탄이 더 생산되고 일정량을 초과수행하는 갱과 채탄중대, 굴진소대들의 수가 늘어났다.

소문없던 7갱 백창일, 우학전채탄중대가 지난 시기보다 석탄생산량을 2배이상으로 끌어올려 탄광적으로 크게 소문을 냈다. 특히 김광철청년돌격대원들은 3월 중순까지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6갱 김광일고속도굴진소대원들은 련속적인 공격전을 벌려 맡은 수백m구간의 굴진과제를 계획보다 한달이상 앞당겨 끝내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뒤를 이어 안심갱 김성철채탄중대, 정윤철채탄독립소대, 5갱 조진명채탄중대, 10갱 김철근, 김철호채탄중대, 1갱 김영욱고속도굴진소대, 6갱 한창만고속도굴진소대를 비롯한 많은 채탄중대, 굴진소대들에서 3월과 1.4분기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끝내고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탄광의 석탄생산성과를 더욱 확대할수 있는 도약대가 튼튼히 마련되고있다. 이미 콤퓨터에 의한 탄차계량계측체계와 생산지휘의 정보화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한 탄광에서는 지난 3월 중순에 벨트콘베아에 의한 석탄운반을 실현함으로써 이 구역에서의 석탄생산전망을 확고히 열어놓았다.

이와 함께 그 어떤 막장조건에서도 기동적으로 전개할수 있는 능률적인 석탄상차기와 무정전지령통화기를 모든 갱막장들에 받아들일 목표를 세우고 그 제작전투를 마감고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런 드높은 혁명적열의로 하여 온 탄전이 새 기적창조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본사기자

백두의 활화산은 징벌의 용암터쳐 악의 소굴을 불사를것이다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히스테리적인 대결광기가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수작전》과 《집무실정밀타격훈련》 등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원쑤들의 천하무도한 도발망동에 백두산총대가 무섭게 뢰성치고있다.

선군조선은 백두의 활화산을 터쳐 정의를 압살하려고 발광하는 극악한 원쑤들의 머리우에 징벌의 용암을 쏟아붓고있다. 증오가 서리발치는 총대로 저주로운 악의 제국에 멸망을 선고하며 선군으로 다지고 백배해온 무적의 힘을 한껏 떠치고있다. 그 진동은 누구나 규탄하고 증오하면서도 징벌하지 못하는 《유일초대국》의 허상을 세계면전에서 산산이 깨버리고있다.

몇해전 어느 한 나라의 군사평론가는 《핵으로 무장한 북조선은 가혹하기 그지없는 제재와 미국과의 기술적전쟁속에서도 번영을 이룩할것이며 반세기이상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군사적도발과 간섭을 궁극적으로 끝장낼 목적으로 초고강도집중공세를 벌릴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지금 그 시각이 도래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이 행성에 거대한 정치적지각변동을 일으키고있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에 시달리던 세계는 위싱톤의 먹줄을 강철주먹에 거머쥔 평양의 무자비한 련속타격을 가슴후련한 심정으로 지켜보고있다. 백두의 칼바람으로 버려온 선군조선의 다기한 성격과 기질, 마음먹은 모든것을 단호히 실천하는 무자비한 본때에 환호와 격찬을 보내고있다. 바야흐로 닥쳐올 정의와 부정의의 통쾌한 판가리대결전을 예감하며 세계의 초점이 모아지고있다.

영웅조선의 만리마기상, 그 강대함과 불변의 의지앞에 전률한 미제가 전대미문의 괴비린내풍기는 침략전쟁광기를 부리며 최후발악하고있다. 천둥인지 지동인지도 모르고 깔창질장하던 박근혜역적패당이 상전의 허장성세에 기가 살아 그 무슨 《작전》이니, 《타격》이니 하며 풀방구리에 쥐나들듯 날뛰는 꼴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모기떼 모인다고 천둥소리를 낼수 있겠는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숨가쁜 발광에 인류는 쓰거운 경멸의 눈초리를 던지며 승리의 통장훈을 련속 부르는 선군조선의 초강경선언에 귀를 장구고있다. 선군의 보검으로 악의 제국을 징벌하며 멸강중심의 낡은 국제질서를 재편성해나가는 자주의 성새, 정의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에 한없는 경의를 표하고있다.

정의는 오직 총대로만 지킬수 있고 진리도 오직 총대로만 말할수 있다.

힘이 없는 정의는 횡포한 부정의의 힘앞에 맥없이 주저앉고만다는것은 력사가 가르쳐준 피의 교훈이다. 힘없고 쇠약한 나라는 아무리 정의를 웨쳐도 통할수 없고 자주권도 지켜낼수 없는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현실이다. 강자가 호령하면 섬겨바치고 위협하면 물러서다못해 통채로 먹히우는 오늘의 세계에서 진리는 오직 하나, 자체의 강력한 힘에 있다. 상식도 리성도 모르고 부정의의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침략자, 쌍패무리들은 오직 힘으로 다스리고 짓뭉개야 한다.

불의의 광풍이 이지럽게 몰아치는 이 행성에 정의의 순풍을 안아오기 위해 우리는 만난을 무릅쓰고 허리띠를 조이며 핵을 보유하였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 문명에 목무하는 정의의 보검을 틀어쥔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이 쥐고흔들던 핵무기의 부정의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곧 나라의 자주권이고 생존권이며 존엄이다. 불의를 매장하는 백두산대국의 불패의 국력이다. 지구상에 침략의 핵, 살륙의 핵이 있는 한 우리는 정의의 핵, 자위의 핵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다.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과 각축전으로 수난의 력사만을 새긴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숙명론을 세계의 중심무대에로 진출하는 지정학적락관론으로 뒤바꾸어놓은 우리의 강위력한 억제력은 순수 그 어떤 재부나 자원으로 마련된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워온 철천지원쑤 미제와 가증스러운 매국역적들에 대한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가 버린 징벌의 장검이다. 남의 땅에서만 전쟁의 불을 지르고 온갖 참화를 들씌우며 제땅에 떨어질 폭탄이 아직은 세상에 없다고 호언하는 제국주의날강도들에게 진짜불벼락맛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타오르는 증오와 복수심을 섬멸의 탄두에 재워왔다.

해방후에 울린 첫 기관단총의 총성이 오늘은 대지를 박차고 솟구쳐오르는 한도로케트들의 불뢰성으로 터져오르고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을 푼 핵폭음으로 우뢰쳤다. 백두의 천출명장께서 가리키신 승리의 화살표따라 불구름을 맞받아 출격하는 붉은 매들과 결사옹위의 침로를 막리는 육탄함대들, 멸적의 무쇠발톱으로 적들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는 철갑대오의 진군앞에서 원쑤들의 전략무기들은 삶은 호박에 물파하다. 적들자체가 인정하다싶이 우리 공화국은 핵연료개발과 기폭장치, 운반체 등 핵무기보유에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핵강국이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결코 원쑤들을 전률케 하는 무장장비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령도자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쌓고 정의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천만군민의 산악같은 의지이다. 우주에 무수히 떠도는 미제의 정찰위성들도 이 세상 가장 정의로운 힘이 발산하는 무한대한 위력을 절대로 가늠할수 없다.

《모르는것이 참으로 많다.》

이것은 3년전 봄의 위기시대때 당시 미국방장관이 우리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전전긍긍하며 퍼놓은 탄식이다.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여 《방어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한 제국주의전쟁광신자의 맥빠진 소리는 오늘도 죽어가는 승냥이의 마지막울부짖음으로 들리고있다.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시대로 불리우고있다. 새로운 국제질서, 정치, 경제, 군사, 과학, 자원 등 21세기 지구의 핵심문제들이 바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좌우될것이라는것이 국제사회의 평이다.

그 중심에 바로 선군조선이 서있다. 닥쳐온 조미최후대결전의 결말은 우리 민족의 미래뿐아니라 동북아시아와 행성의 미래와도 직결되여있다. 이 극적인 대결전에서 세계는 조선의 승리를 믿어의심치 않는다.

창건된지 몇년만에 제국주의강적과 싸워이긴 영웅조선이다. 미국과의 전쟁은 파멸이라는 공포가 유령처럼 떠회하던 지난 세기 50년대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추호도 두려움없이 일떠서 침략자들을 죽음의 함정속에 처넣었다.

정치군사적위력이 그때와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고 최강의 핵억제력까지 갖춘 오늘의 선군조선, 탁월한 전략전술과 맞받아나가는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원쑤들을 기절초풍케 하시는 위대한 천출명장의 령도를 받는 우리 공화국은 미국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단호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이다.

백두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강대함은 이 행성의 정의를 대표하고있다.

걸출한 선군령장과 군대와 인민이 하나가 된 우리의 힘은 무한대하다. 천만군민 누구나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이다. 증오의 불길이 펄펄 치솟는 우리의 총폭탄에는 핵보다 더 위력한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과 일심단결이 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리며 어리석게 덤비드는 원쑤들을 가차없이 죽탕쳐버릴 철석의 맹세가 있고 기어이 받아낼 천추의 피값이 있다.

그 타격력은 결코 화력밀도로 계산할수 없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 없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으로 만장약된 이런 군대와 인민앞에 강적이란 없다.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겹만겹으로 뭉친 무적의 성새앞에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리는 원쑤들의 그 어떤 정밀유도무기나 《참수작전》, 《족집게식타격》도 맥을 추지 못한다.

우리의 총결산은 준엄하고 무자비하다. 그것은 성스러운 수령결사옹위전이며 천만군민의 단호하고도 결단성있는 보복전이다.

60여년전 6월의 그날에는 미제가 우리를 제멋대로 공격할수 있었어도 오늘은 이밤도 없다. 선제타격권은 더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침략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최고존엄, 우리의 자주권을 억천만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강위력한 선제타격권리를 당당히 행사할것이다. 멸적의 핵탄두들을 탑재한 우리의 전략로케트들은 침략의 검은구름을 치쓸고 악의 소굴에 불벼락칠것이다. 우리의 타격은 민족의 피타는 숙망을 안고 침략의 아성을 단숨에 덮쳐버릴 노호한 불의 폭풍이다.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아무리 멀고 넓다 해도 우리의 정의의 불소나기앞에서는 초토화의 비극을 면할수 없다. 세계는 미국이 걸핏하면 휘둘러대는 부정의의 힘이 더 무서운지, 선군조선의 정의의 힘이 더 위력한지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미국은 령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조선을 무너뜨리려고 악을 썼지만 언제나 비참한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세계는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이 지금껏 제거품을 물고 선전해온 《붕괴될 나라》가 다름아닌 그들자신이였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돌이켜보게 될것이다.

우리의 최후성전은 원쑤의 급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여 단숨에 끝장내는 일대전격전이다.

부정의의 란무와 증압에 신음하던 세계는 미구하여 주체조선이 오만한 미제의 선불질을 무자비한 핵심광으로 처갈기고 사악한 도발의 무리를 정의의 불세례로 다스리는 장쾌한 광경을 보게 될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육중한 땅크들로 땅을 물어뜯고 가증스러운 공중비적들과 침략선들로 하늘과 바다를 뒤덮며 《공산군들을 고대인의 동굴속에 몰아넣겠다.》고 오만방자하게 떠벌이다가 종탕에는 저들이 죽음의 골안에 처박히고말았다.

지금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이 그 무슨 《내륙진공작전》이니, 《평양침령》이니 하며 허세를 부리지만 불안과 공포로 죽지 부러진 불꽃은 감출수 없다. 력사에는 전략적오판이 멸망으로 이어진 실례들이 허다하다. 원쑤들은 저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전략적오유의 대가를 종국적멸망으로 치르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무적의 혁명강군은 백두의 폭풍과 같이, 백두의 번개와 같이 단숨에 달려나가 이 세상 제일 너절한 미제와 괴뢰역적들, 그 추종무리들을 뼈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묵사발로 만들것이다. 원쑤들은 제땅에서 최후의 종말을 맞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발편잠을 자지 못할것이다. 잘못된 시기에 잘못 내린 판단과 대책없는 망동질을 놓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

피맺힌 원한을 안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복수의 길에서 절대로 탈선을 모른다. 미제가 없는, 아수가 없는 정의로운 행성을 만들고야말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세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기를 두고 서리고 맺힌 원쑤에 대한 분노와 원한, 복수심을 어떻게 총폭발시키는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허 영 민

반역《정권》을 박살내야 평화가 온다

남조선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총선거)가 다가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금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반역《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괴뢰보수패당의 음모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얼마전 박근혜역도는 자기 측근들이 선거후보로 나선 대구와 부산의 여러곳에 코를 들이밀고 다 꿰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북통을 또다시 요란스럽게 두들겨댔다. 그에 이어 며칠전에는 《북풍》조작으로 선거형세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돌려볼 심산으로 《북의 위협》에 대해 요란히 떠들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비린청을 돋구었다. 괴뢰국무총리와 장판나부랭이들, 군부, 경찰패거리들도 역도의 장단에 춤을 추며 지지마다 그 무슨 《안보위기》와 《테로대비》에 대해 부르짖고있다.

박근혜역적패당이 총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로골화하는 한편 《북풍》조작에 광분하는것은 또다시 민심을 회유기만하고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며 재집권의 발판을 닦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총선거에서 괴뢰보수패당이 또다시 득세한다면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불행과 재난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일당의 《국회》다수의석차지는 대결《정권》, 반역《정권》의 잔명부지에로 이어질것이다. 그것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기를 더욱 증대시켜 남조선인민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게 될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 괴뢰집권세력은 민심을 기만우롱하고 사상 류례없는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내면서 핵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던 용납 못할 민족반역의 무리이다.

지난 2012년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간판을 《한나라당》으로부터 《새누리당》으로 바꾼 보수패거리들은 그 무슨 《쇄신》에 대해 요란히 광고하였다.

당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였던 박근혜역도는 리명박과의 그 무슨 《차별화》에 대해 떠들며 역도에게 모든 정책실패의 책임을 들씌우는 한편 《유연한 대북정책추진》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자기가 집권하면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할듯이 범새를 피워댔다. 하지만 그것은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긁어모아 권력야욕을 채우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독사는 허물을 벗어도 독사이다. 박근혜역도가 아무리 리명박역도와의 《차별화》를 떠들어도 매국반역의 본색이야 달라질수 있겠는가.

실제로 청와대안방을 차지한 박근혜가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온 《신뢰프로세스》는 리명박역도의 《비핵, 개방, 3000》과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 결코 다름바 없는 쌍둥이대결정책이였다.

무지무능하고 천하바보인 박근혜역도는 미국과의 공조로 《대북제재》와 군사적압박을 강화하면 우리가 주저앉을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북남관계를 푸는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장내는 길을 선택하였다.

역도와 그 졸개들은 집권초기부터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길전략》을 제창하면서 《북핵포기》를 미친듯이 떠들어댔는가 하면 《대북정책》의 전략적목표를 《북변화》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로 정하고 그 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박근혜패당은 미국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는 물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합법적인 우주개발활동에 대해서까지 그 무슨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며 그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반공화국도발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괴뢰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핵소동과 《제재》, 《인권》모략과 비라살포, 핵전쟁불장난에 미친듯이 매달림으로써 북남관계는 파절을 거듭하던 끝에 종탕에는 오늘과 같은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지고말았다.

우리 공화국은 북남관계에 민족의 운명과 통일의 전도가 달려있기에 괴뢰당국의 거듭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고 아량있는 자세에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하지만 애초부터 대화와 협력을 우리를 해치고 《체제통일》의 개꿈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겨온 박근혜패당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의지에 호응해나설리 만무했다.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그때마다 파괴되고 종탕에는 오늘과 같은 험악한 지경에 이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현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는 극악한 대결미치광이인 박근혜역도와 함께 《새누리당》패거리들이 빚어낸것이다.

력하면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에 미쳐날뛰는 상전의 물방아간에 정신없이 물을 대준것도 《새누리당》패거리들이며 우리 조국강토에 핵재난을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우두머리를 고맙다고 등에 업고 돌아치며 민족을 망신시킨것도 이 반역당의 대표라는자이다.

이런 최세의 대결광신자, 호전광들이 이번 총선거에서 또다시 《국회》를 저들의 독판치기마당으로 만든다면 현 북남관계의 파국을 해소할수 없는것은 물론 극도의 핵전쟁위협도 가실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남조선인민들은 한시도 발편잠을 잘수 없게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행복시대》니, 《희망의 시대》니 하며 노죽을 부리던 박근혜역도와 보수패거리들에게 완전히 우롱당하였다.

도대체 지금에 와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차에찐것이 무엇인가.

경제는 죽탕이고 민생은 도탄이다.

박근혜패당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너무도 큰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유신》독재의 부활, 내외를 경악케 한 《세월》호침몰사고, 물의를 일으킨 력사교과서《국정화》놀음, 근로민중의 생존권을 짓그리 말살하는 로동개악,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굴욕적인 《합의》, 심화되는 경제파국과 최악의 실업, 자살사태…

이것이 바로 박근혜역도와 그의 지수기 《새누리당》이 저지른 죄악이다.

바로 그러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독재통치와 반인민적악정에 미쳐돌아가고 북남대결밖에 모르는 박근혜《정권》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울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새누리당》이 득세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진다는것은 허황한 궤침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뼈저린 체험이고 교훈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심을 거역하며 권력욕을 채우는데 눈이 멀게 돌아치는 정치협잡군들의 교활한 기만술책에 속지 않고있다. 과거의 죄악으로 보나 오늘의 행실로 보나 《새누리당》에는 그 어떤 미련도 기대도 가질것이 없으며 더이상 지켜볼것도 없다.

대결《정권》, 반역무리를 박살내야 평화도 오고 남조선인민들이 생존권도 누릴수 있다.

북남대결과 매국반역에 환장해 날뛰는 역적패당에게 인민은 준엄한 파멸을 선고하고야말것이다.

심 철 영

돌려세울수 없는 괴멸의 운명

무섭게 격노한 백두산군대는 원쑤격멸의 선제타격명령만 기다리고있다는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의 최후통첩장이 나가자 기접한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이 또다시 여기저기를 주린 개처럼 싸다니며 《응징》나발을 불어대고있다.

며칠전 군사분계선일대의 다련장로케트포부대에 코를 들이민 괴뢰국방부 장관 한민구역도는 꼭 뒤간 덮개처럼 생긴 입을 너풀거리며 그 누구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하라느니, 《도발은 자멸》이라느니 하고 제거름을 물고 고아댔다. 같은날 괴뢰해병대 사령관 리상훈이라는자도 해병대 2사단을 돌아치면서 《파감히 방아쇠를 당겨 응징》하라고 피대를 돋구었다. 이어 김로에 동지를 든 잔뜩 기가 치진 해병대패거리들을 찾아가서는 《압도》니, 《정신적대비태세》니 하고 한바탕 력설을 해댔다.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이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적멸소탕해버릴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자비한 징벌의지앞에 간이 콩알만 해져 벌벌 떠는 주제에 《응징》이니, 《압도》니 하며 억지로 허세를 부린것은 실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불륜없는 다련장로케트포 《천무》따위를 그 무슨 큰 보물이나 되는듯이 어루쓸며 비린청을 돋군 한민구역도의 불꽃은 투구를 뒤집어쓴 비루먹은 개꼴그대로이다.

하다면 우리 군대의 강철포신들이 련속 불어댄 보복의 불줄기를 보고 혼비력산하여 물밖에 던져진 메기새끼처럼 숨넘어갈듯 임만 쩝쩝 다시던자들이 어찌하여 황급히 전연지대와 서울주변지역을 땜돌며 전쟁기운을 고취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괴뢰군부내에서 급격히 고조되고있는 염전기운과 사병들의 동요를 막아보자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상전과 함께 우리의 최고존엄에 무엄하게 도전해나선 박근혜역적패당을 이 하늘아래 살아숨쉴수 없게 모조리 죽탕쳐 철저히 매장해버릴 단호한 립장과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였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은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괴뢰역적패당에게 가장 참혹한 멸망을 안기려는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괴뢰군사병들이 군사에는 알짜 무식인데다가 미련하고 아둔하고 고집스럽기 짝이 없는 로친을 청와대안방에 둔탓에 이제는 영낙없이 무리죽음을 당하게 되였으니 그로부터 그들이 매일, 매 시각 들쓰는 공포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알만 하다. 미제침략군의 그 어떤 최신무기도, 괴뢰군의 《천무》따위도 우리 군대의 집중적인 멸적의 불세례를 막아낼수 없다. 그러니 괴뢰군사병들이 랜히 호랑이를 건드려 화만 청한 청와대바귀를 저주하며 불안과 근심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지 않는가. 특대형도발과 북침전쟁연습에 환장해 날뛰는 박근혜일당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다 개죽음을 면치 못할바에는 차라리 자살하든가 아니면 일찌감치 들고뛰자는것이 총알받이로 내몰린자들의 생각일것이다. 사병들을 엄선하여 배치하는 괴뢰군의 최전방부대들에서 지금 자살자와 탈영자가 크게 늘어나 군부패거리들의 골치거리로 되고있는 사실만 놓고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

염전, 염군분위기에 목 절어 싸울 용기조차 못내는 이런 오합지졸들을 다그어대고 기강이 해이될대로 해이된 괴뢰군의 사기를 추세워 한사코 우리와의 대결에로 내몰자는것이 전쟁광 한민구나 리상훈의 속타산이다. 하지만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이 팔죽단지에 생쥐 말림거리듯 관하부대들을 돌아치며 아무리 《응징》을 부르짖고 《정신적대비태세》를 떠들어도 공포에 떠는 사병들을 과연 휘어잡을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이 전쟁공포증에 사로잡혀 도망질 구멍만 찾는 허재비무리를 가지고 감히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에 맞서보겠다고 들까불며 휘소리를 웨쳐댄 그자제가 어리석은 추태이다. 박근혜역적패당이 죽음의 함정에서 헤여나보려고 제아무리 지랄발광을 해도 백두산혁명강군이 이미 선언한 비참한 괴멸의 운명을 절대로 돌려세울수 없다.

개가 너덜거리면 범이 물어가기마련이다. 한민구나 리상훈역도는 지금처럼 앞뒤도 가리지 못하고 구멍뚫린 문풍지처럼 입술을 나불거리며 멋없이 헤덤비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보가지없는 귀신이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괴뢰호전광들은 홍물스러운 상통이 이제우에 무사히 붙어있으려거든 입부리를 조심해야 한다.

조 남 수

종미독재자 박근혜의 미국행각을 규탄한다

재미동포들 시위투쟁 전개

미국 각지의 재미동포들이 3월 31일 미국 워싱톤 백악관앞에서 박근혜역도의 행각을 규탄하는 긴급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종미독재 《대통령》 박근혜의 미국행각규탄 재미동포긴급성명》을 랑독하였다.

성명은 괴뢰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에 의해 권력을 탈취한 박근혜의 사대매국, 반민중적인 통치로 하여 민중들의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박근혜가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여 민중의 삶을 벼랑끝으로 몰아넣더니 북남관계마저 결딴내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파탄난 민생, 파괴된 민주주의, 결딴난 북남관계를 정상화하라.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에 핵전쟁참화를 불러올 북침합동전쟁연습을 즉각 중지하라.

이날 재미동포들은 동족대결에 환장한 박근혜가 미국에서 벌어지는 반공화국모의판에 끼여든데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며 항의기운을 고조시켰다.

미제와 박근혜패당의 무분별한 도발망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리자

범민련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 성명 발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가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을 규탄하여 3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을 극도의 절망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박근혜패당의 정치롱토를 우리 조선민족의 손으로 갈아엎을 시기가 왔다고 지적하였다.

박근혜패당은 남조선땅을 외세의 핵전쟁터로 내맡긴것도 모자라 동족살륙에 미쳐날뛰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제 아비를 죽인 미국의 충견으로 된 박근혜를 남조선인민이 《발근혜》, 《바꾸네》 등의 대명사로 부르며 조소하고있다고 밝혔다.

언어도 하나, 피줄도 하나인 조선민족을 말살하려고 남조선땅은 물론 제 잔명까지 미국에 내맡긴 박근혜는 말그대로 《메근혜》라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이 력대 최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가장 성스러운 태양을 가리워보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망동을 부리고있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이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분노와 격분을 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 미제와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 쓸개빠진 동족대결광신자 박근혜가 있는 한 조선민족은 물론 온 세계가 단 한시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편히 살아갈수 없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범민련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제 죽을줄 모르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박근혜패당의 무분별한 도발망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미, 반전, 반박근혜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핵안전》의 간판을 단 도발광대극

핵범죄원흉의 소굴 미국에서 제4차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 반공화국대결모의판이 벌어졌다.

독수리둥지에서 비둘기알을 깨운다는 격의 실로 어이없는 이 도발광대극을 보며 사람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념원을 참을수 없이 우롱, 모독하는 핵범죄자들에게 저주와 분노의 침을 뱉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국제적규모에서 핵안전문제를 론의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것으로 되여야 하며 마땅히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위기를 날로 고조시키는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도발망동을 문제시하고 성토단죄해야 할것이다.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하기 위해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소동을 광기적으로 벌리는자들이 무슨 낯짝으로 《핵안전》을 운운하며 그와 관련한 회의까지 주최한단 말인가.

핵전쟁광신자들이 주도해온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것은 미국의 핵전횡과 강권, 친미역적들의 북침핵전쟁도발음모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허울에 불과하다. 그것은 지금껏 이어져온 이 불순한 놀음의 정체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2010년 4월 미국의 워싱톤에서 있은 제1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 《국제적인 핵안전》의 간판밑에 처음으로 열린 이 회의는 핵문제를 걸고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모해하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도발행위로 하여 시작부터 여론의 비난대상이 되였다.

회의가 열리기 전 괴뢰들은 그 무슨 《북핵위협》이라는것을 구실로 미국상전에게 우리 공화국을 제속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목해달라고 애걸하였다. 괴뢰들의 청탁대로 미국은 《핵안전수뇌자회의》가 시작되기 며칠전인 4월 6일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재지정한 《핵태세검토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도 서슴지 않을 흉악한 계책을 꾸민자들이 그 무슨 《핵무기없는 세계》를 운운하고 《핵안전수뇌자회의》까지 주최하였으니 이 얼마나 가소로운노릇인가.

이런 속에 《핵안전수뇌자회의》를 연 미국은 핵문제를 운운하며 우리 공화국을 파렴치하게 걸고들었으며 괴뢰들은 상전의 나발에 적극 맞장구를 치면서 국제적인 반공화국핵공조를 다른 나라들에 구걸하기에 바삐 침핵전초기지인 남조선에서 막을 올린것이다.

1차회의는 국제적인 반공화국핵소동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2차회의는 미국의 적극적인 추종자인 남조선에서 열린 이것만 놓고보아도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것이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불순한 광대극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실지로 괴뢰패당은 《핵안전수뇌자회의》에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당시 괴뢰집권자였던 리명박역도는 회의의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발사계획을 악랄하게 걸고들며 대결소동에 광분하였다. 또한 외세의 옷자락을 붙들고 《북핵문제가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주요현안》이라느니, 《북의 핵포기》니 뭐니 하며 회의의 기본론점이 우리에게 쏠리게 하려고 날뛰였다.

그이후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는 미국의 더러운 반공화국핵소동의 하수인, 동족대결미치광이로서의 박근혜역도의 추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은 계기로 되였다. 회의에서 박근혜역도는 《핵무기없는 세상》은 《북핵포기》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고 나발질하였는가 하면 《북에 핵포기메세지를 확고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고아대면서 날로 맥이 빠져가는 반공화국핵소동에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발악하였다. 지어 녕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체르노빌핵발전소보다 더 큰 핵재앙》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무식한 망발까지 늘어놓아 국제적망신을 당하였다. 역도는 우리의 병진로선까지 걸고들면서 《불가능》이니 뭐니 하고 악담질하였다.

제땅에 미국의 핵무기를 가득 끌어들이고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뻔질나게 벌려놓는 핵범죄자가 도리여 외세의 핵위협으로부터 민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핵억제력을 시비질하다 못해 《핵재앙》이니 뭐니 하며 터무니없는 반공화국모략설까지 내돌린것은 그야말로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보는바와 같이 괴뢰역적패당은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것을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악랄하게 헐뜯고 국제적인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불순한 모의판으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해왔다.

미국주도의 《핵안전수뇌자회의》는 핵전쟁위험이 없는 세계를 념원하는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으로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북침핵전쟁도발소동의 진면모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일뿐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우리의 정당한 핵보유를 걸고들며 《핵안전수뇌자회의》를 반공화국《제재》압박수단으로 써먹고있는것은 결코 정당화될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아무리 《북핵문제》니 뭐니 하고 걸고들며 모략과 《제재》압박소동에 광분해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자위적핵억제력을 대배천배로 강화해나갈것이며 세계평화의 교란자, 북침핵전쟁광신자들의 비렬한 반공화국핵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본사기자 김 향 미

태양을 가리워보려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기만적인 허울마저 벗어던진 도발자들의 무모한 망동

최근 미국의 언론들이 지금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이 참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진행중이라는것을 상기시키면서 군부가 남조선에서 불장난을 벌려놓을 때마다 우리 최고수뇌부를 기본목표로 하여 정탐과 감시를 최고의 수준에서 감행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세상사람들을 격분케 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최근년간 미국은 이미 작성한 조선전쟁계획에 따라 싸이버 및 지상감시설비, 위성, 유인정찰기와 무인기, 군함 등에 설치된 감시기재들을 종합적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립체적인 감시를 해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전자통신지휘체계통로와 전파들에 대한 분석, 핵기지, 미싸일발사장, 비행장, 해군기지, 지하방공호,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대수, 해상에 있는 함선수, 특수부대들의 위치와 움직임, 기지밖에 있는 군대수, 도로를 통한 수송상태 등과 지진활동까지 포함하여 1400가지의 움직임들을 항시적으로 빠짐없이 추적 및 감시하였다고 한다.

매일 새벽 3시부터 전날에 종합분석된 정보자료들은 서울에서 일본을 거쳐 미태평양사령부에 전송되였으며 이것들은 국방성과 동부해안에 있는 정보기지들에도 통보되였다고 한다.

이것은 최근년간 합동군사연습을 벌릴 때마다 《방어적》이요, 《년례적》이요 하고 떠들어댄 미제의 음흉한 속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상대방에 대한 립체적인 추적, 감시가 방어적일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더우기 추적, 감시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면 선제타격하겠다고 한 호전광들의 공언을 상기해볼 때 광란적으로 벌어진 합동군사연습들은 우리에 대한 극도의 위협공갈이 아닐수 없다.

폭로된 자료들의 침략적, 범죄적 성격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적들이 감시에서 기본목표를 우리의 최고지도부와 고위간부들의 움직임, 최고수뇌부의 지택에까지 둔것이다. 이것은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원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집요하고 끈질긴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는 《북핵제거》를 실현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해지자 미국은 최근년간 비렬하게도 다른 나라들에서 써먹던 지도부제거방법을 우리 나라에도 적용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미국은 그러한 기도를 감추지 않고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이 지금까지 벌려온 합동군사연습을 한계단 더 승화시켜 《유사시 북의 최고수뇌부와 핵, 미싸일 등 북의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는데 초점》을 맞춘 《내륙진공작전》훈련을 벌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핵보유능력을 막고 핵통제권을 장악하려면 《참수작전》과 같은 특수작전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고 공공연히 웨쳐댄것은 매우 심상치 않다. 그것은 극비밀리에 감행해오던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작전을 공개적으로 단행하겠다는것이다.

적들이 떠드는 《참수작전》이라는것은 우리의 핵 및 전략로케트《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명명권자》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극악무도한 선제타격내용을 담고있는 특수작전이다.

적들은 이 작전의 현실성을 현지에서 확증하기 위해 전시 우리의 최고지도부와 핵 및 전략로케트군기지들을 비롯한 중요전략적대상물타격을 작전임무로 삼고있는 미제침략군 육군 1특수전단과 75특공련대, 미해병대 특공련대, 미공군 720특수전술전대, 미해군특수전단 《씰》팀 등 지난 시기 해외침략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거의 모든 특수작전부력들을 일시에 남조선에 들이밀었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합동군사연습이 빈질나게 벌어졌지만 이번처럼 특수작전부력이 대대적으로 밀려든적은 일찌기 없었다.

호전광들은 공중대지상유도탄을 장착한 전투폭격기편대를 동원하여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집무실정밀타격훈련》이라는것까지 감행하였다. 미국과 괴뢰들이 이미 벌려놓은 《북종심내륙진공작전》과 《평양점령작전》 등이 지상과 해상에서 우리 수뇌부를 노린것이였다면 이번 《집무실정밀타격훈련》은 공중에서도 그것을 획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조성된 사태는 조선반도에서 파연 누가 정세를 격화시키고 정화를 위협하는 가증스럽고 흉물스러운 침략세력인가 하는것을 여실히 고발해주고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우리의 반발을 유도함으로써 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있지만 그럴수록 침략자, 도발자로서의 저들의 더러운 정체만 더욱 드러내놓을뿐이다.

우리 공화국이 지금까지 적들의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지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이미전에 핵전쟁의 포성이 울렸을것이다. 현실은 우리가 적들의 위협천만한 침략기도에 대처하여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온것이 얼마나 정정당당한것이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적들이 무엄하게도 우리 최고수뇌부를 기본목표로 하여 정탐과 감시를 벌리다 못해 핵시험전쟁에서 《참수작전》까지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우리 천만군민은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가다듬고있다.

주권국가의 수뇌부를 특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고 내놓고 떠들며 날뛰는 미치광이의 도전을 용인할 나라나 정부는 이 세상에 없다.

미제가 우리에 대한 위협공갈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이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려 하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겠는가.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려는것보다 더 큰 죄악, 더 악랄한 죄악은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자기의 삶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지켜주고 북돋워주며 운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눈부신 태양복을 대대손손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산다. 태양이 없는 지구를 생각할수 없듯이 최고수뇌부가 없는 조선은 생각할수 없다.

천겹만겹으로 최고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있는 우리 천만군민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려는자들은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죽탕해버릴 필사의 의지를 벼리고있다.

하늘에서 태양을 끌어내리겠다는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것은 없을것이다. 그가 누구든 우리의 존엄높은 최고수뇌부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가차없이 징벌하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이다.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한 대역죄는 가장 참혹하고 가장 처절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남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해 세기를 두고 다져온 우리 식의 타격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일찌기 상상하지 못한 보복전으로 될것이며 악의 소굴 아메리카제국이 이 행성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드는 원쑤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리 현 도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 미국에 핵반격 경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조선반도정세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를 3월 31일과 4월 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조선반도정세격화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이 전례없는 규모에서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이에 대한 근거로 내놓았다.

미국은 핵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협하는 동시에 극단적인 정치경제적압박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은 미국이 나라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드는 경우 즉시에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것이라고 대변인은 경고하였다.

이 나라 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것도, 오늘에 와서 선제공격적인 대응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도 전적으로 미국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30여만의 대병력과 《B-52》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핵항공모함타격집단들을 총동원하여 《북종심내륙진공작전》과 《평양점령작전》 등 조선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하는 실동훈련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데 대해 까밝혔다.

그는 미국이 조선에 대하여 감행하고있는 군사적위협과 적대행위들이 조선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망동이라는것이 불보듯 명백해진이상 조선은 신성한 최고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맞받아나갈수밖에 없게 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 《브즈글랴드》, 로씨야 24TV방송, 인터네트통신 가제따.루,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뜨 모스크바》를 비롯한 로씨야의 출판보도물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일본의 NHK방송 그리고 김정일령도자회고 브라질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뽈스까지부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조선 미국이 자주권을 침해하려드는 경우 핵반격경고》, 《조선 미국의 조선반도정세격화의 책임전가 배격》 등의 제목으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는 도발자들의 처참한 말로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국제사회가 엄중히 경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전쟁의 원흉, 악의 소굴을 송두리채 없애버릴것이다

스위스, 브라질, 영국, 로씨야단체들과 국제기구 성명 발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을 지지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얼마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이 미제와 남조선역적패당의 극악무도한 도발행위를 규탄하여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만일 침략자들이 특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수행결사용위전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참수작전》과 같은 무모한 특수작전에 가담한 특대형도발자들을 모조리 뭉치채 참해버릴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이 반공화국전쟁책동을 걷어치우지 않는다면 멸망하고야말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 *

김정일령도자회고 브라질위원회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범죄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3월 2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방대한 핵타격수단들과 특수작전부력을 동원하여 남조선괴뢰들과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리며 조선반도를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조선의 혁명무력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만단의 선제타격태세에 진입한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어째보려고 분별없이 날뛰는 침략자, 도발자들의 처참한 말로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전쟁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정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 《우리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미제와 박근혜역도의 비참한 종말이 그대로 보여주게 될것이다》를 지지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가 3월 2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망동이 극한계선을 넘어서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최고존엄에 대한 치떨리는 도발이며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천인공노할 대결망동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적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렬합루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이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가 3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승냥이들에게 불세례를 안길 때가 왔다.

망동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면 한순간에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이 날아난다는것을 박근혜역적패당은 알아야 한다.

조선이 취하는 모든 자위적조치들을 적극 지지하며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련대성을 보낸다.

* *

세계평화리사회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3월 1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계평화리사회는 미국과 남조선의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연습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새로운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방대한 무력이 투입된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은 유엔안보리사회의 새로운 대조선《제재결의》남조와 때를 같이하고있다.

유엔안보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고있다.

세계평화리사회는 조선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제국주의의 간섭과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

외부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수호하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응당한 권리이다.

선제타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고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저들의 핵무기들을 배치하고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세계평화리사회는 조선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제국주의의 간섭과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

미국은 조선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라

체스꼬출판보도물들 보도

체스꼬인터네트신문 《쁘로스페옵스까 쁘라브다》가 3월 27일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 미국이 움직이면 핵으로 선제타격하겠다고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계의 이목을 끌고있는 조미대결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있다. 폐전만을 거듭하며 조선에 항복서를 바쳐온 미국, 미국은 조선을 잘못 건드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움직이기만 하면 가차없이 핵으로 선제공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제국주의세력이 조선을 공격하려고 시도한다면 비참하고 파국적인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은 이라크나 리비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저들의 종국적멸망의 마지막페지를 미국본토에서 보기 좋게 써주겠다는 조선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라.

세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하는것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

신문은 《미국이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한 공포, 전률, 참패를 맛보게 할 폭탄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조미대결전에서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함께 편집하였다.

한편 조선과의 친선협회 체스꼬지부 인터네트홈페지도 이날 같은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쩐 다이 쫑 웰남주석으로 선거

【평양 4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웰남에서 쩐 다이 쫑이 국가주석으로 새로 선거되였다.

그는 2일 웰남인민회의 제13기 제11차회의에서 있은 표결에서 대다수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할 확고한 립장 천명

이란무력 총지휘참모장이 3월 30일 성명을 발표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할 군대의 확고한 립장을 천명하였다.

성명은 오만한 세계렬강들과 유태복고주의정권이 이란을 반대하는 모략적인 짬빠니야를 벌려왔지만 그 모든것은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이란은 적들의 군사적위협과 경제적압력에 완강히 맞서나가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이란무장력은 언제나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민족산업을 발전시킬것을 호소

남아프리카부대통령이 3월 30일 한 회의에서 민족산업을 발전시켜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국내기업들이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술기능을 개선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좋은 상품들을 생산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주민들속에서 국내산상품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일자리문제와 근로자들의 수입을 올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위협책동에 맞서나갈 립장 표명

나토주재 로씨야상임대표가 3월 30일 로씨야 24TV방송에 출연하여 미국의 위협책동에 맞서나갈 정부의 립장을 밝혔다.

최근 유럽에서 미국의 무력강화책동이 격화되고있는데 대해 까밝히면서 그는 로씨야는 이를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집요한 서방의 책동, 이란의 강경대응

오늘의 세계

최근 이란이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암살책동에 강경대응해나가고있다.

얼마전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는 군부와 정부의 고위인물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국가기관들과 전국민이 이슬람교혁명을 말살하려는 미국 등 서방의 책동에 최대한 각성을 높일것을 지시하였다. 지배주의세력들의 책동을 사전에 짓부시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투쟁이 없이는 이슬람교혁명을 수호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1979년 친미적인 파호라비독재정권을 뒤집어엎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란이 이슬람교혁명을 수호해올수 있은것은 자기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적대세력들과의 투쟁을 견결히 벌려왔기때문이다.

이러한 이란의 자주적발전을 탐가와하지 않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이 나라를 압살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다.

특히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을 걸고 감행된 경제적제재와 고립압살책동은 참으로 악랄한것이였다.

지난해 7월 이란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룩되자 미국은 마지못해 경제제재해제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또다시 이 나라에 대해 트집을 잡았다. 그것이 다름아닌 이란의 탄도미싸일발사문제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란은 지난해에 여러차례에 걸쳐 미싸일발사시험을 진행하였다. 얼마전에도 미싸일발사시험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철두철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였다.

이에 대해 이란은 자국의 국방력강화는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자는것이 아니라 이란의 억제력을 위한 국방력강화전략에 따른것이라고 자기의 립장을 명백히 밝히였다. 말하자면 자국의 미싸일발사시험은 평토방위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2231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란의 립장에 리해를 표시하고있다.

옴엔주재 로씨야상임대표는 이란의 탄도미싸일발사시험이 유엔결의에 배치되지 않는것만큼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미국만이 이란의 미싸일발사를 《도발적이며 안정을 해뜨리는것》으로 표사하면서 그와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조치를 추진시키며 국제적분위기를 고조시키려 하고있다.

미국은 지난 1월 미싸일활동에 관여하였다는 리유로 개별적 이란인들과 11개의 기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미제무성은 지난 3월 24일 미싸일제작에 관여한 이란의 2개 회사를 제재명단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의 자금과 무기거래를 도와주었다고 하면서 2개의 영국회사들에도 제재를 가했다.

핵합의를 보기 전에 가하였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것과 거의 동시에 미싸일발사시험을 구실로 가하는 제재, 이것은 미국 등 서방이 반미적인 이란을 어떻게 해서나 굴복시키려는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란정부의 립장은 확고하다.

이란외무성 대변인은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는것은 이란의 합법적인 권리이다. 그것을 기본목적으로 이란은 국방력을 강화하고있다. 국방력강화를 저지시키려는 미국의 제재조치에 나라의 미싸일능력을 발전시키는것으로 대답할것이다라고 자국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대한 이란의 강경대응은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갔다.

이란대통령은 나라의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미싸일생산을 늘일데 대해 국방상에게 이미 지시하였다.

지난 3월 9일 이란은 1400km의 거리에 있는 목표들을 소멸할수 있는 탄도미싸일발사를 진행하여 자기의 군사적능력을 과시하였다.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경제적제재책동을 짓부시기 위해 서방의 투자에 대한 기대나 환상이 아니라 자립에 기초한 《저항경제》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방도로 내세우고있다.

몇년전부터 실시되고있는 《저항경제》정책은 서방렬강들의 제재에 대항하는 방향에서 이란의 경제체계가 수립되여야 한다는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의 로선에 의하여 취해진것이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는 경제문제해결을 대내외정책의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시하면서 자국이 《저항경제》를 발전시킬 때만이 적들의 그 어떤 위협과 제재책동을 무력하게 만들고 실업, 인플레, 불경기 등 가장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확언하였다.

그는 미국이 막후에서 이란이 핵협상타결로 리득을 보지 못하도록 우회적이고 교활한 수법을 적용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란과 미국사이의 직접적인 쌍무협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데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미국의 반이란책동의 교활성과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고 자체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발전시켜 강경대응해나가는 이란인민의 투쟁은 앞으로 응당한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김 국 철

《방위》의 간판밑에 추구하는 범죄적목적

하늘과 땅, 바다, 우주공간에서의 패권장악을 위한 미국의 책동은 모두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 《방위》의 간판밑에 감행되고있다. 싸이버공간도 례외로 되지 않고있다.

《펜타곤이 자체의 싸이버안보체계를 시험하기 위해 떠여난 해커들을 물색하고있다.》

이것은 미국방성이 이달중에 실행하려 하고있는 특별계획을 전한 미국언론들의 보도내용이다. 외부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국방성의 콤퓨터망을 해킹해보게 한다는 이 계획은 싸이버안보상의 약점들을 찾아내여 퇴치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방성이 이러한 놀음을 벌려놓은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국방성의 콤퓨터망에 대한 해킹시도가 하루에만도 수백만건이나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만일 그것이 성공하는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느니, 이번 계획실행을 통하여 《펜타곤의 싸이버방위능력이 강화될것이며 궁극에는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켜줄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있다.

미국이 이번 계획을 공개하면서 《싸이버위협》에 대처한 《방위능력강화》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의혹을 품고있다. 겉과 속이 다른 미국의 언행을 그대로 믿을수 없다는것이다.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이번 계획의 리면에는 보다 음흉하고도 위험한 기도가 깔려있을수 있다는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번 계획실행을 통하여 노리는 진짜목적은 무엇이겠는가.

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싸이버공간에서 절대적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해온 미국의 지나온 행적에 대해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의 싸이버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준비사업을 은밀히 추진시켜왔다. 자국의 싸이버전략은 철저히 《방어적》이며 《억제적》이라고 표방하면서도 뒤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적인 싸이버공격능력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품을 넣어왔다. 비밀리에 이란의 핵시설들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들이대여 이 나라의 평화적핵활동을 지연시킨것은 그의 첫 시험단계였다.

국제무대에서 인위적으로 로씨야, 중국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의 《싸이버위협》설을 널리 조장, 류포시킨 미국은 이를 구실로 선제공격을 기본전략으로 정하고 그에 기초한 싸이버전쟁준비책동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희상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일반적인 군사리론이 여기에 악용되였다.

2012년 10월 중순에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수표한 싸이버작전정책관련 비밀명령에는 《싸이버위협을 신속성있게 처리하기 위해》 사전경고없이 선제타격을 가할수 있다고 지적되여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방위》의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다음해 초에 싸이버사령부를 공격력까지 갖춘 기구로 발전시킬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미국은 막대한 자금을 탕진해가며 싸이버전부대의 규모를 몇배로 늘이고 과괴적인 싸이버공격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 구입하기 위한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여왔다.

창설초기에 900명이였던 싸이버전부대의 규모를 6000명이상으로 늘이기로 한 미국에 있어서 현재 난문제는 능력있는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것이다.

부족되는 인원들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방성은 민간분야에까지도 검은손을 뻗치고있다.

몇해전 싸이버사령관이라는 자가 《인재발굴》을 목적으로 인터네트상에서 공격과 방어기술을 겨루는 《국제해커들의 축전》이라는데까지 직접 머리를 들이민적이 있었다.

이것은 싸이버전부대의 규모가 확대되기 이전에 있은 일이다. 이 한가지 사실을 놓고서도 미국이 싸이버전을 동반한 침략전쟁에서 척후대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물색을 위해 모지름을 써왔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지금까지 추구해온 선제공격적인 싸이버전략과 그 실현과정에 직면한 난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이번 계획실행을 통해 노리는 목적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이 기회에 높은 급의 해킹기술을 습득한 콤퓨터전문가들을 선발하여 다른 나라들을 목표로 한 선제적인 싸이버공격능력강화에 동원, 리용하자는것이다.

결국 《방위》의 간판을 내건 미국방성의 이번 놀음은 선제공격적인 미국의 싸이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만극에 불과한것이다.

교활하고도 파렴치한 미국의 책동에 의해 인류의 문명발전에 이바지되여야 할 싸이버공간이 치렬한 전쟁마당으로 변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중동의 어느 한 대상을 목표로 하여 싸이버공격을 개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에 의하여 국제무대에서는 공개적인 첫 싸이버전쟁이 정식 시작되게 되였다.

미국이 이 시각에도 우리 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로부터의 《싸이버위협》에 대해 운운하고있는것은 심상치 않다.

지금 세계는 인류에게 싸이버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미국의 책동을 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

ㄱ-61054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